

최고의 한 해를 위한
학생회 활동의 절대 중심
고품격 학생회

學
生
會

*대표 저자 : 최성호, 김원, 정성현

#1

- 일시 : 2007년 1월 31일 ~ 2월 1일
- 장소 : 부천 복사골연수원



최고의 한 해를 위한
학생회 활동의 절대 중심
고품격 학생회

#1

0 프롤로그

① 학생회 배움터를 열며 5

② 한고학연 소개 6

③ 한고학연 활동 내역 7

④ 행사 일정 및 내용 9

⑤ 주요 행사 내용 10

1 학생회란 무엇인가?..... 13

2 학생회의 정석

① 학생회 선거 29

② 학생회 구성 34

③ 학생회 1년 계획 수립 35

④ 학생회 대의원회의 운영 38

3 학생회 주관 축제 집중탐구 45

4 그 밖의 주요 연간 행사 93

5 학생회 수기 모음 111

하사회배우터
연호배우터
프롬프트

학생회 배움터를 열며...

안녕하십니까?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의장 해슬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 학교 학생회 임원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제1회 학생회 배움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곳 복사골연수원까지 오시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아래 학업과 학생회 활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러한 외부적 행사가 많은 부담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직 학업에 대한 열망이 왕성할 때에 학생회장을 시작하여 한고학연이라는 단체의 의장까지 맡게 되어 많은 부담을 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꿈과 목표가 있었기에 힘든 나날들도 웃으며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학교의 3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학교 정책에 아무런 의견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학생회라는 기구가 어느 순간부터가 학교의 행사만을 도맡아 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 한고학연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자치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05년 6월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나아가 전국 고교 학생회 임원들이 모여 학생회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제공하고자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간부수련회 등과 같은 학교 행사에 대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캠페인, 급식지도와 같은 체험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나비효과와 같은 작지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 선택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동료들은 '입시'라는 틀 안에 갇혀 오직 '대학'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여러분들은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고, 또한 '학생회 배움터'라는 행사에 참여하며 동료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노력하는 1%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1박2일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학생회 배움터가 이번 1회로 끝나는 단기성 행사가 아닌 2회, 3회를 거듭하며 전국의 모든 고교 학생회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한고학연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의장 해슬기

한고학연 소개

정식 명칭은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韓國高等學校學生會聯合會, The Federation of Korean Highschool Students' Associations).’ 약칭 ‘한고학연’ 혹은 ‘FKHSA’입니다.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분규 사건, 대광고등학교 학내 종교 자유 보장 운동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한고학연은 고등학생들 스스로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 11월 한고학연 출범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다음해 2005년 6월 6일 47개교 가입 고등학교 대표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 때부터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으며 활동 초기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사회의 오해로 활동에 지장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전국 고등학생들의 대표 단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했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주5일 수업과 교과서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급식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급식 감사단을 설치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고학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회 제자리 찾아주기’, ‘고등학생 권익 보호와 증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한고학연의 목표는 학생회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학교에서 학생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한고학연 조직에는 의결기관(대의원회)과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의장단과 총 8개 산하 부서 - 단체운영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지원사업위원회, 연구위원회, 학생위원회 -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고학연은 의결과 행정기관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고학연의 가입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생회 대표로서, 다른 한 가지는 전국 대표로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선 학생회 대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 학생회의 대표 자격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즉, 어떤 학교 학생회 전체가 한고학연에 가입하고 대표자 1명을 파견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회는 30명 정도로 구성된 학생회가 아니고 그 학교 학생들 모두가 포함된 학생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고학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학교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국 대표 제도는 대의원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국 대표 대의원은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실시합니다. 전국 대표 선거는 매년 2월 달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 고 학 연 활 동 내 역

2004.12 - 2005.05	출범 준비 및 대의원 모집
2005.06.06	출범식 (서울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
2005.06.07	SBS 8뉴스 인터뷰 (6/7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 출범)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KBS 뉴스9 인터뷰 (6/7 '학생 권익 보호' 고교생 연합 출범)
	KBS시사투나잇 인터뷰 (6/7 '전국 고교학생회 연합' 뒀다)
2005.06.08	시사저널 인터뷰 (6/10 고교 학생회의 진수를 보여주리라)
2005.06.15	대학내일, 한국고교신문, 입시타임즈 인터뷰
2005.06.16	마산MBC 청소년 토론 프로그램 '고등어' 인터뷰 (6/25 고등어 아홉 마리: 학생회)
2005.06.18	EBS 청소년 원탁 토론 출연 (6/26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지킨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주관 '경쟁적 입시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청소년 대표 초청 토론회' 참석 (국회 도서관 강당)
2005.08.06 - 2005.08.07	제1회 정기 대의원회의 (방화 국제청소년센터)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촬영
2005.08.09	'2005 e-청소년 좋은 콘텐츠 페스티벌' 공모사업 선정 (전국 고등학생 대토론회)
2005.08.21	학생회 법제화 연대 구성을 위한 청소년단체 간담회 개최(명동 미지센터)
2005.09.29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주최 '청소년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 패널 및 토론자 참석 (서울 세종문화회관)
2005.12.04	세계최연소 국회의원 만나튀어만과 함께하는 청소년 참여 대잔치 토론회 참여
2005.12.23	MBC 송년특집 '텐(10)'에 10대 청소년 대표로 참석.
2006.01.05	고교생 관련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06.01.06	월간 '우리교육'인터뷰(사당역)
2006.01.12	청소년의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경향신문 인터뷰)
2006.02.01 - 2006.02.16	전국대표 대의원 모집.
2006.02.07	연합뉴스 인터뷰 (고교생대표 선거 총 감독)

2006.02.08	주간교육신문사 인터뷰
2006.02.08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진표 교육 부총리님과 대화)
2006.02.18 - 2006.02.19	한고학연 임시회의(2006년 1차 워크숍)
2006.03.11 - 2006.03.12	2차워크숍 및 임원 구성 (의장 해슬기 외 17명) 2기 집행부 출범식 (서울 유스호스텔 연회장)
2006.03.15	세계일보 인터뷰
2006.03.18	2차 운영회의 (서울 유스호스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4/3 '한고학연'에 기대해본다)
2006.03.20	연합뉴스 인터뷰 (3/20 고등학생들 "월 2회 주 5일제 더 힘들어요") 세계일보 인터뷰 (3/20 "주5일 수업 "학생 더 힘들어요") 중앙일보 인터뷰 (3/21 고교생들 "주5일 수업 더 힘들다")
2006.03.31	대통령직속자문기구 교육혁신위 토론회 참가(학생인권파트)
2006.04.02	코엑스에서 "주5일제, 교과서" 관련 설문조사 실시 4차 운영회의 (서울 코엑스)
2006.04.22	라디오21 한고학연 특집 방송
2006.05.15 - 2006.05.19	KBS '주부 세상을 말하다' 출연 (청소년특집 5부작 모두 출연)
2006.05.24	세계일보인터뷰 (5/25 고교생 63% 교과서 구입 아까워) 서울경제일보인터뷰 (5/25 "안쓰는 교과서 꼭 사야하나")
2006.06.06	독일 Deutsche Welle 라디오 인터뷰 한고학연 1주년 기념행사 (역삼수련원)
2006.06.27	MBC, SBS, 연합뉴스 ("급식감시단 설치해달라.") 뉴스스 ("고교생들 안전한 급식 원한다.")
2006.08.05 - 2006.08.06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대의원총회 장소: 서울 유스호스텔
2006.09.16	당동문화의집 방문 학생회활동 노하우 전수
2006.12.08	세계인권의날행사 + 권리침해신고센터 오픈식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권리침해신고센터 소장: 권근영 학생위원장
2006.12.09	바이러스 ("한고학연 - 권리침해신고센터 오픈")

행사일정 및 내용

일 시		내 용
31일	13:00~14:00	○ 집결(~13:15) : 부천 복사골연수원 (1호선 송내역) ○ 접수 및 등록 - 참가자 접수 및 등록, 숙소 배정 - 앙케이트 조사,
	14:00~15:00	○ 개회식 - 의장 개회사, 부의장 한고학연 소개 및 경과보고, 사무국 일정안내 및 대의원 소개 등
	15:00~15:30	○ 자유시간 - 숙소확인, 짐 정리 등
	15:30~16:00	○ 참가자 인사 나누기 - 인사 나누기,
	16:00~16:30	○ 학생회 사례발표 - 학생회 체험수기 및 모범사례 발표
	16:30~18:00	○ 분임토의 - 미리 선정된 토론주제를 가지고 토론 후 정리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 역할극 - 분임토론의 내용을 가지고 조별로 역할극을 준비
	21:00~23:00	○ 레크레이션 - 참가자 장기자랑 등
	23:00~	취침
1일	07:00~08:00	기상 및 세면, 아침체조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 체험활동 - 기획서 작성하기, 캠페인 해보기, 회의하는 방법 등
	11:00~12:00	○ 전문가 강의 - 리더십 및 학생회관련 강의 등
	12:00~13:00	점심식사
	13:00~13:30	○ 폐회식 및 귀가 - 수료증 전달, 사무국 경과보고, 부의장 폐회사

주요 행사 내용

① 주제별 분임 토론회 및 역할극



개회식 전 설문 조사와 앙케트 조사를 통하여 토론 주제를 선정한다. 8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이 주제에 대해 90분 간 분임 토의를 한다. 의견을 정리하고 각 분임 별로 정리된 의견에 부합하는 간단한 역할극을 준비하여 발표한다. 본 행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토론회는, 상을 타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기존의 토론대회와는 달리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② 체험 활동



각 분야 별로 한고학연 대의원 1인이 맡아 진행한다. 4개의 조로 나누어 각 세미나실을 돌아가며 체험 활동을 한다. 기획서 작성은 기획조정위원장 박형식 대의원, 건의문 작성은 지원사업위원장 김도일 대의원, 캠페인 피켓 제작은 학생위원장 권근영 대의원, 회의 진행법은 연구위원장 정성현 대의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학생회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다.

③ 리더십 및 학생회 관련 강의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다. 그 중 우리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이다. 참되고 깨끗한 리더십은 미래 지도자들에게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아래 리더십 전문 강사님을 초청하였다. 강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내용은 본 행사명이 '학생회 배움터'인 만큼 학생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하고 함께 고민해 보며 그 속에서 리더십을 기르고 배울 수 있게끔 준비 되어 있다.

**하세호랑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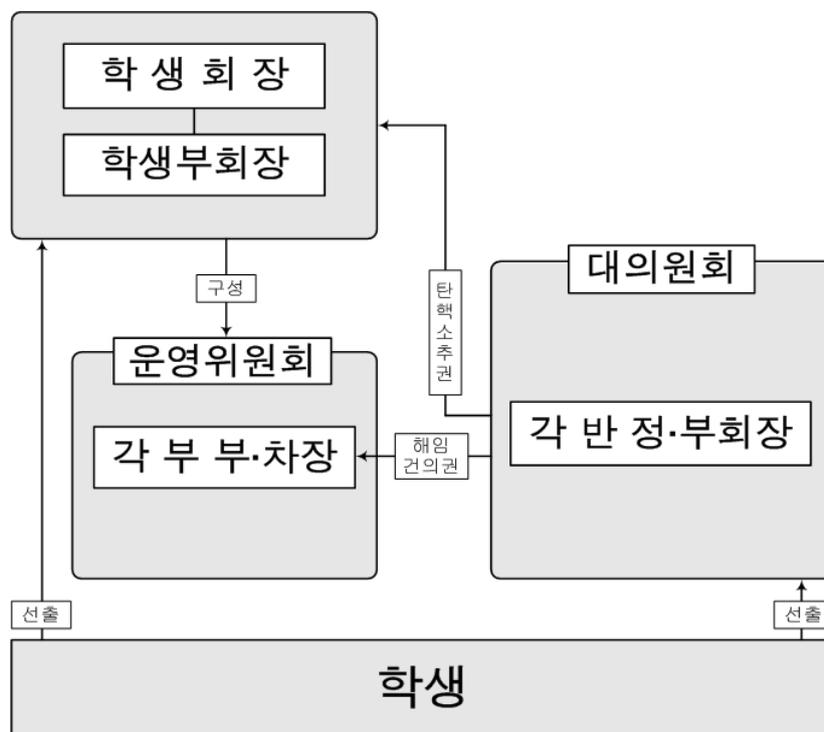
1. 학생회란 무엇인가?

고등학교 학생회의 의미

• 고등학교 학생회

- 학내 민주화 과정의 일환인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 스스로의 자치·대표조직
- 2~3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 일을 맡아서 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전교생을 포함하는 개념
- 흔히 말하는 학생회는 학생회 소속의 '학생회 운영위원회'일 뿐임

고등학교 학생회의 구조



• 학생회장단 (대통령)

- 학생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학생회의 대표이자 대의원회의 의장
- 학생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가 있음 (현실 정치의 내각책임제와 유사)
- 러닝메이트제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가 팀을 이루어 출마)

• 학생회 운영위원회 (국무회의 및 장관)

- 학생회장단이 학생회의 업무를 나눠 맡게끔 임명하는 각 부서의 부장·차장들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조직
- 학생회장(혹은 학생회장단)이 임명권을 독점적으로 행사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이 내각구성권을 독점하는 것과 유사)

- **대의원회 (국회)**

- 각 반의 정·부회장을 대의원으로 하는 대의제 조직
- 학생회 결정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가짐
- 대의원회 의장을 학생회장과 별개로 따로 뽑는 학교가 있음 (현실 정치에서의 미국식 대통령제적 3권 분립과 유사)

고등학교 학생회의 의의

- **학생자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생이 학교생활을 스스로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본단위**

-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피치자인 ‘학생’이 학교운영에 일정정도 참여하는 학생회 활동을 보장해야 함

- **학생들의 자치적 욕구와 토론문화를 반영하는 기구**

- 교육기본법 제5조에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으로 명시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에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님

- **학생 자치조직으로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에게 주어진 일정 부분 학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자주성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회 운영의 문제점

- **제도적 측면에서 학생자치는 선언에 불과함**

학생회칙 교육부 기본안 (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섭할 수 없다.

- 학생자치는 권장사항·교육과정일 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자치에 관련된 내용은 학칙에 위임되고 있음
- 지금 현재 모든 고등학교의 학칙에서 학생자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학생회가 학칙 제·개

정에도 참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학생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전무함

- 학생회의 의결 사항이 학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학생회 임원을 비롯한 학생들은 학생회 대의원회의 등의 의결 과정 등 학생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의식이 고양되어 있지 않음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시간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임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의 회의주제를 회의 전에 교사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회의를 교사가 참관하고 회의 후에 회의록을 승인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논의에 담아내기 힘들

- 학생회칙 상에서 학생회는 교육의 일환이며, 따라서 활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임

학생회칙 교육부 기본안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회실 등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학생회 운영 및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학생회 사업과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모두 지도위원회에 있어 자율적인 결정이 불가능함

학생회칙 교육부 기본안 (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학생회칙 교육부 기본안 (지도위원회 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회의 주요 권한인 회칙 제·개정, 임원 임명, 예·결산 편성, 학생회 운영 등의 최종 결정권이 교사들로 구성되는 학생회 지도위원회에 있음

- 학생회장단 및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회를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조직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며, 그런 인식의 부재 속에서 학생회의 활동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이기보단 학교 대·소사에서 교사들의 심부름을 하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림

고등학교 학생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

• 학내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공립 고등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학교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걸쳐 해결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 3주체 중 유일하게 학생 대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있다. 논의의 장이 학생들과 학생회에 개방되어 있지 않고, 학교 측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후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그것에 따르게 하는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일도, 지나친 생활규정으로 신체권을 침해하는 일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현실 속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집단 수능 부정사건이 일어났다.

학생회의 부재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등학교 문제들을 발생시킨 원인이고, 학생회의 제자리 찾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생회를 통해 스스로 논의하고, 또 학교의 주체로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아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서 교사, 학부모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학생회의 활성화, 법적 지위 보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회 대표 참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및 통념과는 차이가 나는 학교의 현실, 즉 전반적인 학생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학생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적 권리인 참여권의 보장까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참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국의 모든 국·공립학교에 설치되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기구이며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에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 국민의 민주시민화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의결 사항도 전혀 학교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며 학생들은 학생회에 냉소를 보낸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켜가는 진정한 민주를 체험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결국 사회 시간에 배운 민주주의의 원리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태도는 그저 교과서 속 죽은 지식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험이 모이고 모여 결국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자리잡는다.

민주주의의 연원이 된 그리스 시대의 폴리스에서는 청소년들이 도시로부터 지배자와 시민

이 되는 법을 사회 교육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사회 속에서의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이 그리스의 새로운 문명 창출 능력을 증대시켰다. 그리스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 교사로부터 기초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리스 도시의 시민이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은 부모들과 함께 정치 집회나 각종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문명과 정치적 발전을 위한 방법을 사회 교육적으로 익혀갈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인간은 그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실제로 가짐으로써 비로소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다. 이 말처럼 도덕적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에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훌륭한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교육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토론과 타협, 그리고 도덕적 결정의 방법은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보아야지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예로 든 그리스의 교육과 비교해서 우리의 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력 형성을 방해하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정치의 개혁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은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지만 정치의 개혁은 결코 정치권의 일부 정치인들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정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고등학교 학생회의 변화는 학교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의 변화는 곧 학생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촉발한다. 학생회 속에서 죽은 결정이 아닌 살아 있는 결정, 책임을 동반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들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전체의 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정들로 인해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실패를 맛보면서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향상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학생들은 결국 미래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미래의 유권자가 된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바뀌고, 한국 정치가 바뀌어간다. 유권자 개혁을 통한 정치 개혁,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한 민주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학생회가 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생회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 제도적인 개선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 참여권 보장)

현행 법령에서 단지 권장 사항인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는 학생자치에 관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 강화에 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법조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학생회에 관련된 사항은 교

육법 중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 제5조 2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학생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 법령이 무엇인가일 것이다. 앞서 학생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라고 했으므로, 그 법령이라는 것은 곧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말한다. 제17조의 내용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다. 권장, 보호된다는 내용까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운영의 실재를 바로 규정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이 문제이다. 학생회칙의 교육부 준칙에서는 학생회의 목적을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 준칙을 천편일률적으로 가져다 쓰고 있고, 학생회칙이 교칙에 포함되어 그 개정권한이 학생회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결국 학생회는 결론적으로 특별활동의 일환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별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곧 동아리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 규정인 것이다. 자치조직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자체적 회칙 개정권이 상실되어있음은 물론 학생회칙이 교칙에 포함됨으로써 스스로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갈 최소한의 권한이 박탈되어 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학생자치의 선언에 불과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제도 미비에 따른 실제적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미비하여 학생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학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이 제공되지 않거나,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생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여 편성한 예산을 대부분의 학교가 전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이러한 파행적 운영도 학생회의 존립 근거가 법제적으로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학생회의 활동을 가로막는 교칙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학생회는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섭할 수 없다.’라거나,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등의 조항이 대부분의 학생회칙에 삽입되어 있다. 우선 학생회가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섭할 수 없다는 모호한 조항을 뚫으로써 학생회의 근원적 활동인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학교에 요구하는 활동을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지도위원회의 존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학생회 사업과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모두 지도위원회에 있어 자율적인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도위원회는 교직원 전체를 그 위원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을 그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교육부 준칙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회 운영에 관련된 권한, 즉 학생회의 주요 권한인 회칙 제·개정, 임원 임명, 예·결산 편성, 학생회 운영 등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교육부 준칙에서

는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권한을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감사에 관한 사항,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상 학생회가 가져야 하는 모든 권한을 지도위원회가 갖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학생회의 의결 사항이 학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체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시간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학급회의를 위해 책정된 H.R.(Home Room)시간은 대부분 자습 등의 대체 활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학급회의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목소리를 집약해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학급회의, 대의원회의의 회의 주제 및 안건을 회의 전에 교사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 교사가 참관하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후에 회의록을 승인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논의에 담아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생회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학생회의 법제화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등의 관계 법령에는 자체적인 회칙 제·개정권, 임원 임명권, 회의 개최권, 예·결산 편성권,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회칙이 교칙에서 독립하는 한편 위에서 언급된 독소조항들이 삭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정식 위원으로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 교육 주체의 인식 개선

이러한 제도적 개선책들과 더불어서 학생회에 대한 교육 주체, 즉 학생·학부모·교사 및 학교 및 교육 당국(교육인적자원부)의 총체적인 인식 변화 또한 절실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및 교육 당국 등 교육 주체 모두가 학생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학생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정적 인식과 편견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 주체에게 다 그 책임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분명 학교를 구성하거나,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사·학교·교육 당국일 것이므로 이들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 후,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교사

일단 교육 주체 중 교사가 갖고 있는 학생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교사들은 학생회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회라는 조직 자체가 교사들로 구성된 지도위원회 산하에 있도록 규정한 교칙이 대다수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교사들의 의지에 따라 학생회가 제한적인 현실에서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 극히 일부 보장된 권리조차 빼앗기고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유명무실해지느냐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큰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 비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사의 결정 사항이나 학교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학생들의 학생답지 못한 월권행위라고 폄하하기 일쑤이다. 교사들이 내린 결정 중 상당수가 학생의 생활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런 사고를 갖는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학교라는 곳은 분명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학교의 현실은 마치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곳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가 내리는 결정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개 학생들의 삶이다.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고 스스로를 강제하는 결정에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입시 학원들이 대규모화, 전문화되면서 본래 입시 교육 기관의 성격을 짙게 갖고 있던 우리 사회의 고등학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많은 교사들은 학교는 학원과 다르게 단편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인성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식으로 학교의 정체성을 정립해가고 있다. 학교가 지식 주입소가 아닌 인성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성 교육이 무엇인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위에 인용한 글은 시인이자 영화감독인 유하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유하가 연출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이 시를 모티브로 작곡되어 김진표가 부른 노래가 엔딩 테마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학교는 인성교육의 장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 사회의 온갖 병폐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사회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학교의 환경은 지극히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이다. 학교 안에서 형성되는 학교-학생, 교사-학생의 수직적 위계관계는 이성적인 옳고 그름보다도 권위가 앞서는 권위주의의 전형이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수단이 토론과 타협이라는 민주적 요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면서 체험을 통해 권위주의라는 비민주적 요소를 체득하

게 하고 있다. 또한 몰래 행해지는 야간 자율학습 등 온갖 부조리한 행태를 통해 학생들은 법과 정의의 죽음을 배우고 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감추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책임을 느껴야 할 교사들은 학교가 인성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인성교육에 대한 의지를 함축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단지 학원과 비교해서 학교가 뒤처지는 현실에서 학교의 존립 이유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구차한 변명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2. 학교와 교육 당국

두 번째로 학교와 교육 당국의 인식이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인식은 대체로 학생들은 판단력과 사고력이 아직 부족한 시기에 있으므로 제대로 된 요구보다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만을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학생들에게 결정권의 일부를 이양해주면 학교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학생회를 교육 과정이라는 틀에 가두려고 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혼란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정치적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된 상태이다. 지금의 학교는 엄밀히 말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 있다. 학교 안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행위는 교칙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대부분 학교의 현실이다. 이러한 비민주성을 극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점을 학교 당국과 교육부는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부 주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학생회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전국적 학생회장단 모임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교육제도 등의 개혁에 학생들의 대부분이 참여한 시위가 큰 몫을 할 정도로 학생들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학생회 활성화 및 학생의 학교 행정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월간 학교운영위원회에 소개된 뉴질랜드 북섬에 자리 잡은 내피어의 타마티어 고등학교의 학생자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타마티어 고등학교의 학생자치

뉴질랜드는 학운위가 학교의 운영방법, 교육과정 등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중심기구이기 때문에 학운위는 학부모대표 5명, 교직원대표 1명, 학생대표 1명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회장은 반드시 학운위에 참석해야 한다. 학운위원들이 모두 어른이지만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똑같은 위원으로 대우하며 그만큼 학생회 대표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타마티어고는 20여명의 학급대표로 구성된 학생회를 구성해 매주일 회의를 갖는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운영위를 통하여 전달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하기도 한다. 학생회가 중심이 돼서 교복을 바꾸는 설문을 조사해 학운위에 건의해서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학교 주변은 물론 시내중심가에서 음주운전 안 하기 캠페인 등 학운위 참여와 함께 큰 효용을 얻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 힘쓴다.

학생이 학교 행정에 일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일선의 논리에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이 주체성을 잃고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맹목적 지지 세력이 될 것이라는 편견도 한 몫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18세 선거권 운동모임 '낮추자'에서 시행한 지난 국회의원 총 선거의 모의투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코 이념적으로 편향적이지 않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지지할 뿐, 결코 전교조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학생회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모든 결정 사항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를 통해 의결되어야 하므로 학생의 대다수를 만족시키는 의견이 결정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런 여과 과정을 통해 일부의 편향적인 의견도 많이 다듬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 당국이 학생회의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직설적으로 말해서 정상화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행정 사무의 편리함을 위해서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표출되면 교육 당국은 골칫거리 하나가 느는 셈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견 표출이 많아지면 그것들을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 교육부 직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예측이 틀린 것은 아니나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한다는 것, 이는 참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교육 당국은 적어도 자신들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대상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일선 학교들, 엄밀히 말해서 사립학교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학생 대표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인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오찬회에 참석했을 때, 학교 내 인권 현실 개선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제시하여 전국의 고등학교가 최소한의 학생 인권은 보장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 방침은 학교 자율의 극대화에 맞춰져 있고, 따라서 학교 자율을 침해하는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면 우회적으로 제안을 거절했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말하는 학교 자율은 학교 주체 전원의 자율이 아닌 표면적인 소유주의 자율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의 수장조차 학교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 제24조, 제36조에 보장된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로서 그 소유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단(학교법인) 이외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학교 구성원의 자격으로 일정 부분 학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교육부가 일선 학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근대 민법에서 보장한 자유가 야기하는 수많은 병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된 민법 원리가 현대 민법에 적용되었듯이, 교육부는 소유주의 자유만큼이나 학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가 지닌 학교 주체로서의 권리도 중요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3. 학부모

세 번째로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학부모들의 인식은 교사나 학교, 교육 당국의 인식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의 학과 외 활동에 ‘대학 진학 시 학생 생활기록부의 활동 내역에 기재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들 역시 고등학교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특별활동으로 허가하고 있고, 교육과정이 C.A. 시간을 주간 2시간으로 편성하면서 사실상 권장하는 자녀의 동아리 활동마저도 학과 공부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취미 활동’으로 인정받기도 힘든 학생회 활동에 자녀가 참여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회 활동이 동아리 등의 클럽 활동 정도의 의미만으로 치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분명 클럽 활동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다.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학과 과정외의 클럽 활동은 책임감·관용정신·협동정신·인내력 등의 사회적·시민적인 자질을 육성하고, 흥미·능력을 발견 및 확충할 수 있으며, 여가이용의 태도나 교양·오락 활동을 발달시키고, 교과학습을 확충·강화할 수 있게 한다. 쉽게 말해 인간형성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제7차 교육과정 특별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면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학생회 활동은 더욱이 학생들의 협의, 역할 분담, 민주시민 활동을 통해 민주적 생활 태도와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과정 편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결국 학교 당국과 학부모의 인식 부재, 그 중에서도 학부모의 인식 부재의 탓이 크다. 학교가 지식 교육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는 것에도 일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생회 활동을 포함한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 역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권한 등 제도적인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학교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장이나 학교 운영위원 등의 선출에 입후보하는 학부모들이 극히 일부여서 희망자만으로는 정해진 수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매 학년 초에는 임원직을 서로에게 떠밀기 위한 전쟁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일부 이양하겠다는 학생회 활성화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학교의 주체로서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를 비롯한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개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4. 학생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 주체들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인식들은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수십 년 간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우리의 교육 현실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개선이 절실한 것은 결국 학생회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식이다. 먼저 학생의 인식 개선을 꾀하고 다른 주체들의 인식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자.

우선 학생들은 학생회에 대해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며, 학생회가 학생의 자치·대표조직이라는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필자가 학생회장으로 있을 때 학생회라는 명칭조차 학생부 등으로 잘못 알 정도로 학생 대부분이 학생회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게다가 학생회 대의원회의를 통한 의견 제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무능한 학생회에 대한 냉소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의 두발규제 반대 및 내신제도 반대 집회를 떠올려보면, 그리고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할 당시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던 요구사항들을 생각해보면 참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나서봤자 바뀌는 것도 없다’라는 정치적 냉소와 ‘조금만 참고 졸업해서 대학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라 미래 중심적 사고로 인해 요구 사항이 소극적인 표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치적 냉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갖게 된 경험에서 연원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민주적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감들이 쌓여가면서 결국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지극히 객체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현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이디오테스(바보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디오테스란 고대 그리스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의견도 나누지 않고 자질구레한 집안 일만 몰두하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마는 고립된 개인들에게 사용한 호칭으로 미성숙한 정치의식과 주인의식의 부재 등을 꼬집는 말이다.

이런 소극적 의식에 대해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4년 발표된 4집 수록곡인 <교실 이데아>(서태지 작사, 서태지 작곡)를 통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온다.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우리 교육과 학교 현실에 대한 비판이 주제인 이 노래에서 그 책임이 학생 스스로에게도 있음을 서태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변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인과관계가 순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 및 선출 과정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무관심과 냉소가 심화되기도 한다. 역으로 무관심이 선거를 파행으로 이끄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순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학생회장단 선거는 새로운 기수의 학생회를 대표하는 장을 뽑는다는 의미를 넘어 학생회 소속의 전체 학생이 지난 학생회의 공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학생회 상을 정립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의미, 주요한 쟁점을 둘러싸고 분열된 의사를 통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대부분 고등학교의 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다음과 파행 사태들이 일어난다.

선거의 파행적 운영은 곧 그 기수의 학생회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다. 학생회장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므로 학생들은 학생회장이 구성한 학생회 운영위원회도 신임할 수 없게 되며 1년간의 활동에 있어 학생의 지지 없이, 게다가 두 번째 경우에는 학생회장의 열의조차 없이 학생회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이 누적되어 학생회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버린 지 오래인 곳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인식을 지배하는 것이 극단적인 미래 중심적 사고인데 이는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략한 고등학교의 현실과 입시 준비기로 전략한 고등학생의 현실이 만들어낸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대학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으니 참아라.”라는 식으로 대응하기 일췌이다. 이는 현재의 자아를 부정하고 고교 시절을 입시를 위한 시기로 한정하려는 태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주체성과 인권을 유린되어도 되는 신분으로 어느새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기가 대학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식의 생각을 확장해본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을 위한 긴 준비기간이 될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를 농구열풍으로 몰아넣었던 만화 슬램덩크에는 참 많은 명대사들이 나온다. 하지만 나는 이 강백호의 말을 명대사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전국 대회 산왕과의 일전에서 경기 종료 2분이 남은 순간에 허리를 다친 강백호가 그의 선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며 코트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던 감독에게 이렇게 외친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난… 난 지금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들의 책임은 학생보다는 사회에 있다는 것이 옳은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는 것은 사회가 해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 당연하다. 결국 학생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학생회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다.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학생회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설령 학생회의 현실이 변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일일 것이다. 학생의 인식 개선은 학생회 변화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면 먼저 잘 알아야 하고, 먼저 요구해야 하고, 서로 싸우기 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온 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 고민을 행동으로 옮겨온 자들에 의해 역사가 진보해왔음을 알아야 한다. 학생회를 살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자기 학교 학생회에 관심을 갖는 것, 지지를 보내주는 것, 그리고 학교에 불만이 있을 때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라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학생회에 건의하는 것,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회 운영에 참여하거나 학생회장에게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학생회를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학생회는 학생 모두의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행사회의 정서 영역

2. 학생회의 정석

1 학생회 선거

• 학생회 선거

- 보통은 '학생회장 선거'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학생회의 구조에 대해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학생회는 그저 학생회장만 있는 조직이 아니다. 학생회장단과 운영위원(각 부 부·차장)들로 구성된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한 지향점을 가진 '집단'을 뽑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회 선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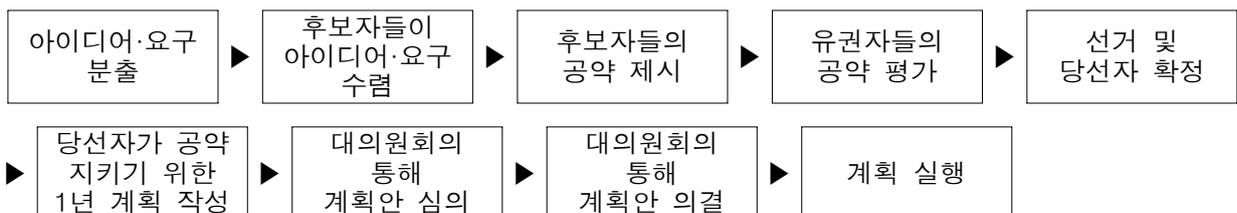
- 선거는 단지 학생회장단을 뽑는 행사가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여러 학생들의 학교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나 요구 사항이 분출되고 그것이 종합되며, 평가받게 되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생회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 과정을 통해 후보자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유권자로서 학생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반적인 학생회장 선출 방식

- 첫째, 모두 따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다. 회장 후보는 개인 별로 출마하고, 최다 득표자가 학생회장이고, 차다 득표자가 학생부회장이 된다. 이 방법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경우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쉽고, 따라서 많은 입후보자들이 생긴다. 입후보자가 너무 많아질 경우 성적이나 기타 기준으로 5명만 제한할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선출된 이후 서로 마찰이 생겨 학생회 활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 둘째, 러닝메이트 제도가 있다. 학생회장/부회장 후보들은 미리 상대를 구하고 함께 팀으로 출마한다.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는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찾아 회장 선거를 같이 준비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선거인단을 구축하는 등 비교적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러나 후보가 많지 않아 대체로 2~3팀 정도가 나오며, 때로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기도 한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좀 더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과 회장단 당선 이후에 서로 마음이 잘 맞아 활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 바람직한 선거 모델



① **아이디어와 요구의 분출** : 일반 학생들의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나 학생회에 대한 요구 사항이 쏟아져 나오는 단계

- ② 후보자들의 아이디어·요구 수렴 :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지향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와 요구 중 자신들에게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
- ③ 후보자들의 공약 제시 : 후보자들이 각각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참모들과 함께 받아들인 아이디어와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공약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단계
- ④ 유권자들의 공약 평가 :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는 단계
- ⑤ 선거 및 당선자 확정
- ⑥ 당선자가 공약을 지키기 위한 1년 계획 작성 : 당선자가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동료들을 학생회 운영위원으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당선자의 공약을 구체화시켜 1년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
- ⑦ 대의원회의를 통한 계획안 심의 : 대의원회의 개최하여 학생회장단과 운영위원회가 작성한 1년 계획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대의원들은 각 반에 전달하여 전교생이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는 단계
- ⑧ 대의원회의를 통한 계획안 의결 : 대의원회의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여 계획안에 전교생이 승인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계
- ⑨ 계획 실행

• 선거관리위원회

- 보통 선거가 치러질 당시의 학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만약 학생회 운영위원이었던(부회장이나 차장) 학생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각 학년에서 학생회와 관련 없는 학생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뽑는다든지, 선거관리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맡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후보자수가 많고 투표율이 높은 흥행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거 입후보 홍보로 시작해서, 입후보자 등록 업무, 선거 관리 업무,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정하고 그것을 통해 부정선거를 막는 업무, 선거 투표 홍보, 선거 당일 투표소 관리와 개표, 당선자 발표 및 공고까지를 총괄한다.

• 성공하는 선거의 세 가지 조건

- ① 공정 선거 : 공정한 선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와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선거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적발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당선자가 정당성 있는 학생회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

- ② 정책 선거 :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 심한 경우에는 인기투표로 전략해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약을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공약 제출을 의무화한다던가, 서로 공약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선관위 차원에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고, 토론회의 경우에는 장소의 제약 상 전교생이 참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③ 흥행 선거 : 선거가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단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학생회장(단) 후보 수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선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 학교 행사로 치러지는 학생회 선거의 특성 상 수치적 투표율(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기권표의 다량 발생이나, 아무나 찍는 표와 같은 후보에 대한 고민과 지지가 담기지 않은 무의미한 표를 던지는 투표 행태 등은 실질적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tip) 공정/정책/흥행 선거로 이끄는 <학생회장 영상 토론회> 기획하기

개포고등학교 17대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기획(안)

• 목적

- 유권자들에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후보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판단 및 선택을 도움으로써 선거가 이미지나 친분 위주가 아닌 인물과 정책 위주로 치뤄질 수 있게 함
- 후보자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여 불필요하게 과열된 선거 운동을 줄일 수 있음
- 의사 결정의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토론에 참여하고, 또 시청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음

• 방영 방안

- 점심 시간에 교내 방송을 통해 방영
- 영상물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내용

- ① 후보자별 자기소개
 - 각 후보자가 제한 시간 (2분) 내에 자신과 자신의 공약을 간단히 소개
- ② 주제별 개별 토론
 - 공통 질문 (3개)
 - 한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이 각각 제한 시간 (2분) 내에 답변
 - 후보자별 답변 순서는 매 질문마다 다르게 배정
 - 개별 질문 (1개)
 - 토론 전에 추첨을 통해서 후보자마다 다른 질문을 임의로 배정
 - 각각 제한 시간 (2분) 내에 답변

- ③ 후보간 지정 토론 : 후보자간 직접토론(총돌) 방식
- 후보 간 자유 질문-답변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 후보 각각에게 타 후보를 지정하여 상호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씩 제공하여 제한 시간 (3분) 내에 두 후보 간 토론을 진행함
 - 후보자는 한 차례에 한 명씩, 모두 두 명의 후보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질문

• 당선을 위한 극비 전략

★ 한고학연에 모여 있는 학생회장들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선거 극비 전략들을 모아봤다. 이런 전략을 잘 이용한다면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을 헤쳐 나가서 멋진 역전극을 펼칠 수도 있고, 5:1의 경쟁률도 뚫고 학생회장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결국 핵심은 ‘알맹이(정책적 비전)’이라는 것!

① 정책 수립 전략

- 학생회에 대한 비전을 정리하라! - 정책 자료집 만들기
- 정책을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 - 예) 따라! 변화에 목마른 ○○인이어!
- 정책 수립을 함께 할 수 있는 유능한 참모진을 구성하라!

② 홍보 전략

- 정책을 표현하는 단어, 문장을 팸플릿, 포스터 등에 계속 사용하라 - 익숙하게 하기
- 팸플릿은 나의 차별성과 정책의 핵심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 포스터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
- 명함 홍보 전단은 저가로 많은 양을 뿌릴 수 있다!
- 온라인 홍보가 가능하다면 적극 이용하라! - 당신들은 UCC 세대!

③ 표 관리 전략

- 일당백! 100표가 달려 있는 한 사람을 공략하라!
- 동아리와 같은 ‘모임’을 공략하라!
- 자신에게 적대적일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에게 편지를 써보자!
- 상대 후보와의 궤간 신경전은 표를 잃는 주범이다! - 소문은 천리마보다 빠르다.
- 3학년은 블루오션이다!

④ 연설문 작성법 : 대부분의 학교가 선거 운동 기간이 짧고, 보통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 직전의 연설 시간이 어찌면 자신을 홍보할 유일하고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연설문을 ‘감동적’이면서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좋은 연설문에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변화를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역설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선거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설문 예시) 개포고등학교 16대 학생회 선거, 기호 2번

안녕하십니까? 개포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이라고 합니다. 개포고등학교의 학생회장 후보로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개포고등학교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3학년 선배님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2학년 동기, 1학년 후배 여러분. 개포의 맑은 땅에서 문을 연지 17년, 우리의 개포고등학교는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이제는 명문 고등학교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개포고등학교를 개포랜드라고 놀리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걸으려는 아닌 척 했지만 속상했던 경험들을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쁜 소문들,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개포고등학교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약의 핵심을 '변화'로 잡았습니다.

우선은 구룡제와 같은 학교 행사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구룡제의 행사 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무대를 외부에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축제의 기획, 홍보 등을 교육하는 열린학교에 참가하여 구룡제를 성공시킬 방안을 배워 오겠습니다. 동창회에서 축제 자금도 지원받겠습니다. 그와 함께 학생회를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학생회에 학생들이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학생회 커뮤니티를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의 받은 의견들을 한달에 한번 교장선생님께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학생회가 단지 학생회 임원 몇 명만의 학생회가 아닌 개포고등학교 전부를 위한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룡제의 변화를 비롯한 학교 행사, 그리고 학생회의 변화는 개포고등학교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개포고등학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 기분 좋은 변화들이 개포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개포고등학교의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 1년의 기억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개포고등학교의 학생부회장이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저는 구룡제와 수능 응원, 그리고 수많은 학교 행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사들을 치루고 나면 제게는 보람보다 후회, 그리고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저는 제 학생회 동기들과 함께 개포고등학교를 변화시킬 방안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두 가지의 변화, 구룡제의 변화, 그리고 열린 학생회 프로젝트, 그리고 다른 수많은 계획들을 생각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의 경험으로 저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큰 무기, 바로 경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경험과 함께 개포고등학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열정도 지녔습니다. 제 경험과 열정이 개포고등학교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게 투표하는 것이 아닌 제 경험과 열정,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려놓은 개포고등학교를 변화시킬 수많은 계획들에 투표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감히 이 선거가, 개포고등학교의 제16대 학생회장 선거가 개포고등학교의 1년을 결정하고, 1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포고등학교가 변화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느냐가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에 던지는 여러분의 한 표, 그 작은 종이 하나가 개포고등학교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개포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포고등학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꿈꿔 오신 희망의 개포고등학교,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2 학생회 조직 구성

• 학생회 조직 체계

★ 각 학교 회칙에는 학생회 부서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여기서 각 부서의 이름과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다르게 불리는 경우도 있다. 총무부 / 기획부 / 학예부(학술부) / 체육부 / 환경부(미화부) / 선도부(자율부) 등의 부서가 있는데, 총무부는 예산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기획부는 행사 기획을, 체육부는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일을, 환경부는 환경 미화 운동과 같은 일을, 선도부는 학교 질서와 관련한 일을 주로 한다. 민사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나 예술고등학교나 농업고등학교의 경우 특별히 부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인천예술고등학교의 경우 음악부, 미술부, 미용부가 있어서 예술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부서가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부서를 정해 놓더라도 활동할 때 특별한 구분이 없고 일부 일 하려는 사람이 여러 사람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많다. 심각하게는, 부서를 나눈 이유가 단지 더 많은 학생회 임원을 뽑기 위한 것일 때도 있다. 학생회가 정상화되려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필요한 부서만 남기고 정리한 다음, 활용도에 따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회를 선출할 때도 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적절히 배치하여 효율을 높여야 한다.

- 만들면 좋은 부서 : 기획부, 정보통신부, 대외협력부(동아리부)
- 없애면 좋은 부서 : 종교관련 부서, 입시정보부
- 성격을 변경하면 좋은 부서 : 선도부/자율부

부서 예시) 각 학교의 부서 조직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 학예부, 총무부, 봉사부, 체육부, 환경부
대전 만년고등학교 : 학예부, 바른생활부, 봉사부, 체육생활부, 미화부, 학습부
인천 예술고등학교 : 총무부, 학습부, 환경부, 선도부, 음악부, 미술부, 무용부
서울 당곡고등학교 : 총무부, 문서관리부, 선도부, 시설관리부, 체육부
울산 울산여자고등학교 : 총무부, 문예부, 학예부, 환경부, 선도부
서울 한성여자고등학교 : 총무부, 기획부, 학예부, 문화부, 홍보부
울산 삼산고등학교 :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봉사부, 선도부
영주 영주고등학교 :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지도부, 봉사부
서울 광성고등학교 : 총무부, 봉사부, 홍보부, 체육부, 클럽부, 종교부, 학예부
원주 영서고등학교 : 총무부, 선도부, 훈련부, 봉사부, 체육부, 환경부, 문예부, 여학생부, 동아리부
안양 성문고등학교 : 선도부, 입시정보부, 학습부, 총무부, 대외홍보부, 문예부, 봉사부, 체육부, 미화부, 종교부
부산 경남고등학교 : 총무부, 학예부, 봉사부, 지도부, 체육부
인천 박문여자고등학교 : 총무부, 생활지도부, 학예부, 체육부, 종교부, 봉사부, 정보부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 총무부, 학습부, 학예부, 지도부, 종교부, 봉사부, 체육부

3 학생회 1년 계획 수립

• 학생회 1년 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들

- 학생회 이름 : 학생회의 지향점을 한 단어로 표현 - 예) 개포고등학교 16대 학생회 '빛'
- 학생회 표어 : 학생회의 지향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
- 로고 : 학생회를 상징할 문양이나 그림
- 활동 목표 : 학생회 활동이 지향하는 목표
- 활동 원리 : 학생회 활동 시 지켜져야 할 원리
- 활동과제 : 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과제, 활동계획을 몇 가지 주제로 묶어 설정
- 세부 활동계획 : 월 단위의 세부적인 활동계획

• 학생회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

- 학생회가 모두 구성되어 학생회장 이하 약 20~30명 정도가 모였다면, 앞으로 1년 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로드맵을 짠다. 물론, 학생회장의 선거 공약이 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된다. 학생회장이 공약으로 두발 규제 완화, 축제에 연예인 초청하기 등을 걸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로드맵은 향후 1년 동안 몇 월에 어떤 활동을 하고 몇 월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학생회 활동은 그 학생회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축제 때만 잠깐 떠서 선생님들의 잔심부름이나 하다가 끝나는 학생회 있고, 이와는 반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축제 기획을 직접 해보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 운동이나 일진회 퇴치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조금 더 노력한다면 두발 자율화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전해볼 수 있다. 실제로 두발 자율화 제안서와 여러 번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두발 자율화를 이뤄낸 학교도 여럿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이 1년 로드맵에 들어간다. 학생회장이 먼저 계획한 것이 있다면 학생회의를 소집해서 학생회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토의를 할 수도 있고, 학생회 전원이 모여서 함께 1년 활동을 정해볼 수도 있다.

1년 중 비교적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2월~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학 직후 '인사 잘하기' '친해지기' 캠페인 혹은 신입생 마라톤대회, 학생회 구성 얼마 후 리더십 트레이닝(Leadership Training), 5월 초 스승의 날, 5월 중순에 체육대회, 여름방학 중 간부수련회, 9~10월에 축제, 10월 중순 3학년 수능 D-30 파티, 11월 3일 학생의 날, 11월 중순 수능 응원, 12월 말 겨울방학 직전 어수선했을 때 특기적성발표대회, 그리고 3학년 졸업식 행사. 이것들 외에도 매달 학생회 신문을 발간하거나, 토론회를 학기마다 개최하거나, 계절마다 교복 설명회를 하거나, 자매 부대가 있다면 자매 부대 위문을 가거나, 어린이집/경로당 봉사활동을 가거나, 학생회 친목을 위한 풋살 대회를 하거나, 인근 지역 학생회와의 미팅을 가져볼 수도 있다. 여기에 두발 자율화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부당하게 처벌 받을 때 학생회가 나서서 저지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학생이 잘못 했을 때

자율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 이 중 두발 등의 큰 문제, 축제 등은 최소 2달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하므로 하려고만 한다면 1년 동안 빠듯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 **학생회 1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

- ① 일단 당선자가 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을 기초로 하여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괜찮은 것을 추가하여 기초적인 계획을 짠다.
- ② 학생회 운영위원(각 부 부/차장)이 모두 선임된 후에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③ 우선 월별 행사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한 후, 월별 계획들 중 정기적인 행사를 제외한 이번 학생회에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행사들을 두 개 또는 세 개의 묶음으로 묶고 그 묶음 각각의 특징을 잡아 양대 또는 삼대 활동 과제를 정한다.
- ④ 활동 과제를 포괄하는 활동 목표를 두세 개 정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활동 원리로 삼는다.
- ⑤ 지금까지 짠 계획에 담긴 학생회의 지향점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 하나를 선정하여 이름으로 정하고, 그 이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한다.

활동계획 예시) 체계적인 학생회 1년 계획 짜기

개포고등학교 16대 학생회 '빛' 활동계획서안

- 표어 “빛이 되어라. 빛을 밝혀라.”
- 로고



라틴어로 빛을 뜻하는 LUX를 조합하여 한글의 '빛' 자를 표현
- 활동 목표
 - 대한민국의 빛이 되는 개포고등학교
 - 개포고등학교의 빛이 되는 개포고 학생회
- 활동 원리
 - 주체적 인식
 - 민주적 토론
 - 효율적 분권
 - 긍정적 사고
- 양대 활동과제
 - 개포인 자긍심 증대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제9회 구룡제 '변화할래' 개최 (2003.8.29~30, 개포고등학교)
 -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원 (2003.11.5, 각 교사장)
 - 제1회 개포컵(축구) / 개포볼(농구) 개최
 - 신형(카드형) 학생증 제작 (2004학년도부터 시행)

- 학생 자치 실현의 토대 마련 ‘열린 학생회 프로젝트’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학생회 웹 사이트 제작 및 운영 (open.gaepo.hs.kr)
대의원회의 활성화

• **활동계획**

- **2003년 7월**

- 16대 학생회장 선거
- 학생회장단 및 학생회 임원(각 부·차장) 구성
- 제1회 개포컵 축구대회 예선
- 제9회 구룡제 준비 위원회 발족

- **2003년 8월**

- 제1회 개포컵 축구대회 본선
- 제9회 구룡제 변화할래

- **2003년 11월**

-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원 행사
- 제1회 대의원회의

- **2003년 12월**

- 제1회 개포볼 농구 대회

- **2004년 2월**

- 개포고등학교 15회 졸업식

- **2004년 3월**

- 개포고등학교 18회 입학식
- 신입생 대상 17대 학생회 모집 홍보
- 제2회 대의원회의
- 신형 학생증 제작

- **2004년 4월**

- 학생회 이미지 광고 제작
- 전교생 설문조사

- **2004년 5월**

- 학생회 웹 사이트 제작 (open.gaepo.hs.kr)
- 학생회 영상 홍보물 제작

• **학생회 1년 계획의 활용 방안**

- 활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안’을 만든다. 만들어진 계획안은 내부적으로는 활동의 큰 틀을 잡는 매뉴얼로 사용하고, 외부적으로는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여 전교생에게 홍보하는 한 편 학생회 담당 선생님 및 교장선생님을 만나 전해드려 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

4 학생회 대의원회의 운영

• 대의원회의는 변해야 한다!

★ 지금까지의 대의원회의를 돌아보자. 대의원회의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형식적인 회의를 하고, 항상 비슷한 정형화된 결과만을 내는 ‘비효율적’ 회의에 그쳐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의 대의원회의는 항상 결론은 ‘환경 미화를 열심히 하자’ 따위의 당위적 구호로 채워지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보다는 추상적인 의견만 난무하는 회의, 회의 주제는 따로 없고 ‘화장실 문이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따위의 건의사항으로 가득한 회의인 것이 사실이다. 대의원회의가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결정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가장 당위적인 방법으로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는 학생 자치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회의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지금까지의 이런 대의원회의의 파행적 운영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의원회의는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회의 환골탈태의 중심에 학생회가 있다. 대의원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학생회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대의원회의의 절차에 대해 연구하여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선보여야 하며, 내실 있는 대의원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대의원회의는 지금까지의 대의원회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토론과 결정 과정이 이루어져서 ‘참여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 대의원회의에서 다루야 할 것들

- 학생회 보고 사항 : 학생회 활동 사항과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보고
- 안건 발의(보고) / 채택 / 심의 : 대의원들이나 학생회 운영위원이 안건을 발의하여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채택하고, 심의해서 표결로 실행 여부를 결정
- 건의 사항

• 회의 준비 방법

- 각 부서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 담당 부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학생회장(대의원 의장)만의 대의원회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프레젠테이션 기기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라! - 학생들의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화려한 영상효과로 시선을 확 끌자.
- 사전에 주제를 공지하자! - 학생회 차원에서 의안으로 상정할 것들은 미리 안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대의원들이 미리 학급의 의견을 묻고, 스스로도 생각을 정리하여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
- 유인물을 이용하여 대의원들에게도 자료가 남는 회의가 되도록 하자! - 안건이 정리된 유인물이 있으면 학급으로 돌아가서 전달하기도 쉽다! (인류의 기억력은 대체로 좋지 못하다.)
-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에 선생님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자!

• **회의 진행 방법** (개포고등학교 16대 학생회 제2회 대의원회의의 예)

- ① 개회 선언 (의장 : 학생회장)
- ② 국민의례
- ③ 의장 인사
- ④ 보고 사항 - 개포고등학교 16대 학생회 '빛' 소개 및 활동 사항 보고
 - 개포고등학교 16대 학생회 '빛' 소개 (홍보부)
 - 개포고등학교 16대 학생회 '빛' 활동 사항 보고 (학생부회장)
- ⑤ 의안 보고 및 채택 - 각 부 부장들의 의안 상정
 - <개포고등학교 16대 학생회 '빛' 2004년 활동계획 개요> 발표 (기획부)
 - <신형 학생증 제작의 필요> 발표 (학습부·체육부)
 -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시행 계획> 발표 (봉사부·학예부)
 - <학생회 홈페이지 제작 계획> 발표 (정보통신부)
- ⑥ 의안 심의 -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표결
- ⑦ 건의 사항 - 학교 및 학생회에 대한 건의 사항 수렴
- ⑧ 폐회 선언

• **회의록 쓰기**

- 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서화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회의록으로 문서화하면 어떤 내용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또 부득이 회의에 불참한 임원도 회의록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면 이에 해당하는 봉사 활동을 주는데, 이는 실제로 잘 인정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학생회에 이름만 걸어놓으면 봉사 시간이 쉽게 나오기 때문이다. 본래 학생회 활동을 한 시간에 해당하는 봉사 시간을 주는데, 여기에는 회의를 했던 시간과 축제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일한 시간과 캠페인 활동을 했던 시간, 아침에 선도부가 교문 지도를 한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회의록처럼 확실한 문서가 작성되어 봉사 시간에 올라간다면 무의미하게 학생회 활동을 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람이 있을 것이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은 대개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새롭게 나온 이야기나 기존의 의견이 바뀐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다. 회의 중 필기한 것을 바탕으로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컴퓨터로 작성할 수도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 노트북을 바로 옆에 두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타자로 찍는 것이다. 타자 속도가 빠른 사람이 하는 게 좋다. 이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 상황이 생생하게 재연되어 누구나 읽으면서 쉽게 상상을 할 수 있고, 회의 시간에 회의록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따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잡다한 말을 적게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내용이 산만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의 내용이 알차고 좋을 때 쓰면 효과적이다.

회의록은 매번 회의할 때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획안처럼 일정한 양식을 갖춰놓고 항상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회의록은 총무부가 쓰는 것이 맞지만, 따로 서기가 있거나 하면 누가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 회의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

- 회의 결과는 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공되어 세부적인 기획으로 탄생되어야 한다. 기획안은 내부적으로는 행사 진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매뉴얼로 사용하고, 외부적으로는 홍보 및 협조 요청 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기획안은 받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한 페이지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one proposal 방식이다. 기획안을 받아보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유심히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 눈에 대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맨 앞면에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one proposal 방식 기획안 예시) 개포컵2004	
16-2004-1-1호	담당부서 : 기획부, 체육부 담당자 : 노혁인(2-5) 방윤석(2-7)
2004 하기 체육대회 “개포컵2004”	
- 개포인의 단합력을 길러줄 행사	
목표 : 1학기 기말고사 이후 무의미하게 지나가기 쉬운 기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u>각 반의 단합력을 다시 한번 키우게 하고, 소홀하기 쉬운 체력을 기르도록 한다.</u>	
■대 상 :	1, 2학년 모든 재학생들
■장 소 :	개포고등학교 운동장
■일 시 :	2004. 06. 25.(금) ~ 2004. 08. 28.(월)
■세부계획 :	일 시 - 2004. 06. 25.(금) HR시간에 체육관에서 조 추첨 2004. 07. 14.(수) ~ 2004. 07. 19.(월)까지 2004. 08. 23.(월) ~ 2004. 08. 24.(화)까지 조별리그 경기 2004. 08. 25.(수) - 토너먼트 경기 (4강전) 2004. 08. 27.(금, 구룡제) - 결승전
방 식 -	세부경기 일정 및 방식은 별지 참조. - 전반전 20분 후반전 20분으로 나누어 경기를 한다. -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휴식시간은 5분으로 정한다.
기 타 -	심판은 체육교과 선생님과 심판도우미를 사전 선발한다. (도우미는 2명 선발하고 봉사시간을 제공한다) - 시작종 이후 5분 내로 미집합시 경기 몰수패 (2:0) 및 조별리그 탈락 - 조별리그 조 추첨은 제비뽑기로 A1,2,3,4,B1,2,3,C1,2,3,D1,2,3 결정 - 그 밖의 사항은 관례나 FIFA규정에 따름.
■현재상태 :	지난 “개포컵, 개포볼”에서는 남학생들만의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개포컵2004”에서는 여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행사를 기획한다. 지난 “개포컵, 개포볼”에서는 단 한경기로 탈락팀이 정해져 경기를 반감시켰다.

따라서 이번 “개포컵2004”에서는 조별리그제 도입을 통하여 최소경기수를 두 경기로 늘려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재 정 : 우승 트로피 - 1,2학년 우승 반에게 각 한 개씩 수여한다.
(제작은 지난 “개포컵”행사 때 의뢰했던 곳에 맡긴다)

수상자 상품 - 우승 반 개인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준 비 물 : 학 교 - 팀을 구분할 수 있는 조끼 및 유니폼 (현재 구비되어 있음)
- 부상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구급상자 (양호실에 의뢰)

학생회 - 각 학년별 리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조별리그 판을 제작한다.

■실 행 : - 학생회 체육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개포볼2004”을 검토하시고 허락해주십시오
- 우승 트로피 및 수상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여러 비용을 위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학생회 주관
축제 집중 탐구

3. 학생회 주관 축제 집중 탐구

- 학생회 활동의 꽃, 축제!

- 축제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축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생들이다. 고등학생들은 1년 간 입시의 압박 속에서 지내야 한다. 이런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축제이다. 1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처럼 큰 행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일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의 총 담당을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학생회여야 한다. 선생님, 학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 조언을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활동의 주축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선생님들이 관례대로 축제를 진행한다면 축제의 초점이 학생에 맞춰지기 힘들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축제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파릇파릇한 생기인 것이다.

-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동아리 활동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

학생회는 축제를 주관한다. 그러나 학생회가 모든 것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자리에 학생회가 대체해 버린 것일 뿐, 학생들의 생생함을 담아내기 힘들다. 결국 학생회가 직접 총괄하되, 동아리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1인 1동아리제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리가 축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축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축제에 임하면 멋진 축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회 부서에 '동아리부서'가 있기도 하고, 학생회 부장이 동아리부장을 겸임하는 학교도 있다.

학생회는 동아리 간에 경쟁을 조율하고 모든 동아리가 축제 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면 된다. 미술부는 교문에서 운동장에 이르는 길에 미술 작품을 걸 수 있게 하고, 음악부는 악기 연주나 성악 공연 시간을 따로 주고, 영자신문부에는 영어 신문을 이쁘게 만들어 학교 곳곳에 걸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제작부에는 재미있는 영상이나 패러디를 만들어서 쉬는 시간이나 공연 중간 중간에 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된다. 특히, 밴드부는 가장 인기 있는 부서 중 하나이므로 특별히 고려하여 불만 없게끔 공연 시간을 분배해야 한다. 강당에서는 연극부가 연극을 할 수 있다. 도서부는 퀴즈 대회를 독자적으로 열 수 있으며, 문예부는 시인 초청 강연을 주관할 수 있다. 학기 초에 각 동아리에 축제 발표할 것을 기획하게 하고, 진행 상황을 매달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활동을 장려하면 더욱 좋다. 이 경우 동아리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거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 그 후에 학생회가 직접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한다.

동아리의 활동의 축제의 핵심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학생회가 직접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한다. 학생회가 할 수 있는 행사도 매우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우선 중대부고를 예로 들면 동아리 발표 행사 외에 중대부속 초,중,고, 중앙대 및 동창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중앙인의 어울림' 이라는 것이 있다. 초등, 중등학교에서 사물놀이나 장기자랑 팀을 초청하고 대학교의 일부 써클, 동창회에서 악단이 와서 연주를 한다. 이런 종류의 행사에서는 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시간을 잡는 것이 학생회의 몫이다. 또, 다른 학교 찬조 공연도 학생회가 신청을 받고 시간 분배를 한다. 이 외에 주먹이 운다, OX퀴즈를 포함한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있다.

- 뛰어났던 학교 축제들 - 개포고, 중대부고, 민사고, 동안고, 당곡고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한 여러 학교의 축제들을 집중 분석하여 이를 공개한다. 서울 개포고의 축제는 학생회장의 철두철미한 지휘 하에 학생회가 단결하여 축제의 기획안부터 공문 발송, 재정, 스폰스, 팸플릿 등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해낸 뛰어난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중대부속고등학교도 학생회가 주관한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민족 화폐까지 만들 정도로 꼼꼼한 축제이면서 적극적인 동아리의 활동으로 인해 풍성한 축제 내용을 볼 수 있다. 안양 동안고등학교도 독특한 축제 컨셉과 학생회 난타 공연 등, 볼거리가 많았다. 서울 당곡고등학교는 동아리협의회, 축제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준비를 하여 많은 행사를 열었다. 이 외에 영상고등학교에서는 귀신의 집이 특징적이었고 백마고등학교에서는 포스터 패러디가 인상적이었다.

1 개포고등학교 제9회 구룡제

개포고 축제 정보 요약

가. 시기

- 8월 하순 시행

나. 축제 과정

- 첫째 날 : 개포컵 본선, 강당 공연, 축제
- 둘째 날 : 외부 무대 공연, 각부 축제
- 종목 : 학생회 테마송 합창, 밴드(주변 학교도 초청 공연), 댄스, CCM, 검도, 팝송, 마술, 방 송부 방송, 과학부 전시, 프라모델-미니어처 등

다. 축제 기획

-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축제 준비위원회를 소집
- 학생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분업체로 운영
- 공식 기획문을 제작하여 학교 측과 동창회 측에 지원 요청
- 축제 후에도 내부 평가와 예산 심의 결산 등 마무리도 놓치지 아니함

라. 축제 홍보

- 포스터 300장, 팸플릿 3000장을 인쇄 및 배포

수록 자료 (2003년 개포고 축제, 학생회장 김원)

- 개포고 9회 구룡제 기획안
- 축제 세부 일정
- 팸플릿 표지
- 동아리 팸플릿 신청서 (팸플릿에 들어갈 동아리 포스터)
- 구룡제 후원 요청 공문 및 서한
- 제 10회 구룡제를 위한 충고

제9회 **쿠·롱·제**



새로움, 어울림, 나눔, 그리고 나아감

變새로움 **和**어울림 **함**나 **눔** **來**나아감

인사말

교장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개포고등학교 신입 학생회장 김 원 입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에도 개포고등학교를 위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인 ‘구룡제 활성화’의 실현을 목표로 계획한 이번 제9회 구룡제의 기획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선배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축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1년에 한번 뿐인 행사이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그 학교의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포고등학교 학생들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의 구룡제는 아쉽게도 내용과 흥행 모두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9회 구룡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 구룡제의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9회 구룡제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개포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과 각 특별활동부 부장을 주축으로 하는 ‘제9회 구룡제 준비 위원회’를 7월 23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저를 비롯한 개포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은 구룡제가 좀 더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에서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제9회 열린학교’ 학생회 축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축제의 기획, 홍보, 이벤트, 개·폐막식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그와 함께 학생회 임원들 사이의 많은 논의를 통해 축제 계획을 만들어나갔습니다.

다음 장부터의 축제 계획은 ‘열린 학교’를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9회 구룡제 준비 위원회’의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개포고등학교의 명예와 개포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번 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고, 또 이 계획의 승인이 나는 즉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축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구룡제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개포고등학교 학생회장 김 원

제9회 구룡제의 개요

- 정식 명칭 : 제9회 구룡제 -변화할래(變和割來)-
- 주최 : 개포고등학교 학생회
- 일시 : 2003년 8월 29, 30일 양일간
- 장소 : 개포고등학교
- 프로그램 (요약)
 - 첫째날 ... 개포컵 본선과 강당 공연 및 각 부 축제
 - 둘째날 ... 외부무대 공연 및 각부 축제 (팝송 콘테스트, 방송제 등)
- 예상 진행 인원 : 재학생 100여명 (학생회 및 각 동아리)
졸업생 및 타학교 학생 20여명 (찬조공연)
- 예상 참가 인원 : 재학생 1000여명 외부인원 500여명
- 목적 및 효과
 - 학생 및 학생회 활동
 - 개포고등학교의 문화적 역량을 지역사회에 알린다.
 - 개포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증진시킨다.
 - 개포인과 타 학교 학생의 교류 및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구룡제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9회 구룡제의 표어

- 變새로움** 개포고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축제
- 초어울림** 개포인과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
- 함나눔** 개포인의 문화적 역량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축제
- 來나아감** 개포고의 미래를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축제

제9회 쿠통제의 상징

1 로고



- ▶ 제9회 쿠통제의 표어인 <새로움, 어울림, 나눔, 그리고 나아감>을 의미하는 변(變), 화(和), 할(割), 래(來)를 배치하였다.

2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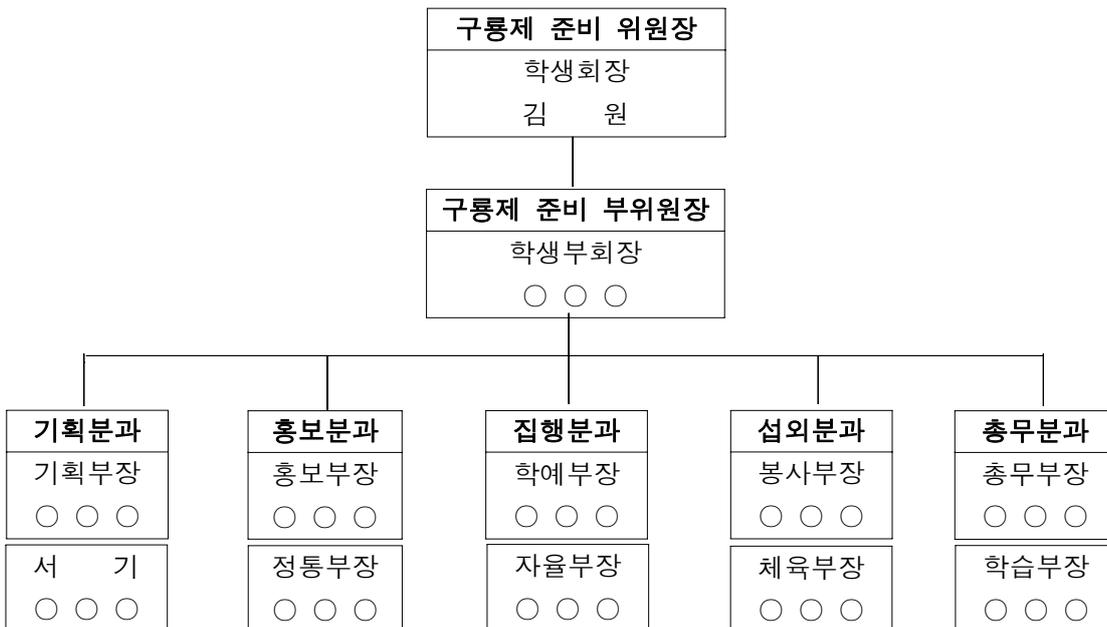
- 디자인 : ○○○ (개포고등학교 4회 졸업생, 한국디자인진흥원)
- 인쇄처 : ○○인쇄
- 필요 매수 : 300여장

3 팸플릿

- ▶ 위와 동일
- 필요 매수 : 3000여장
- 내용 (A5, 20면)
 - 교장선생님 인사말 / 학생회장 인사말 (P1)
 - 행사 개요 (P2)
 - 내부 약도 (P3)
 - 전시 동아리 안내 (P4 ~ 10)
 - 공연 동아리 안내 (P11 ~ 14)
 - 학생회 안내 (P15 ~ 16)

제9회 구룡제의 준비 계획

- 운영 기간 : 7월 23일 ~ 8월 28일
- 운영 목적 : 학생회 구성원 및 각 동아리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9회 구룡제의 철저한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 참가 대상 : 개포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및 구룡제 참가 동아리 대표
- 운영 계획
 - 방학 중 (7월 23일 ~ 8월 20일)
개포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을 주축으로 기획안 작성 및 축제 전반의 기획, 홍보, 예산 편성, 설비 등 논의
 - 방학 후 (8월 21일 ~ 28일)
학생회 임원과 구룡제 참가 동아리 대표들 간의 회의를 통해 학생회의 계획을 보고하고 각 동아리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 계획 확정
- 조직도



분과별 담당 업무

기 획 분 과	축제 운영 계획 수립 및 기획안 작성, 부서별 운영 계획 지원
홍 보 분 과	홍보물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제작 및 홍보
집 행 분 과	개·폐막식, 변화할래 페스티벌, 각 동아리 공연 및 전시 기획 및 준비
섭 외 분 과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담당, 외부 초청 팀 섭외 및 관리
총 무 분 과	축제 예산 지원 및 관리, 스폰서 유치, 필요 물품 조달

제9회 쿨롱제의 세부 계획

1] 공연 및 전시 내역

(1) 변화할래 페스티벌

- 하니브로 (개포고 합창부)
- D.M.Z (개포고 밴드부)
- K.P.D.C (개포고 댄스부)
- 개포고 CCM부
- GSM (개포고 검도부)
- 오경록 (14대 학생회장)
- 함태환 (13대 학생회장)
- 김유진 (제1회 팝송콘테스트 우승)
- 휘문고 마술부
- 각시탈 (단대부고 밴드부)
- 일루션 (경기고 밴드부)
- 밴드 '별루'
- K-POP (13회 졸업생 주민)
- 마야, 동방신기

(2) 자체 공연 (신관 멀티미디어 실)

- G.E.M (개포고등학교 영자신문부) 팝송 콘테스트
- K.P.B.S (개포고등학교 방송부) 방송제

(3) 전시

- B-612 (개포고등학교 천문부)
- C.M.T (개포고 화학부)
- M.E.G (개포고 환경보존부)
- PLA-GEN (개포고 모형제작부)
- 그릴아이 (개포고 만화부)

- S.G.P (개포고 전산부)
- 찍새패 (개포고 사진부)
- kAs ILUMMI (개포고 미술부)
- 마레모네 (개포고 시사토론부)
- CNS (개포고 생물부)

③ 첫째 날 (8/29) 세부 일정

시간	일정	장소
09:00 ~ 11:00	변화할래 페스티벌 (리허설)	강당
11:00 ~ 01:00	개포컵 결승 (1학년)	운동장
01:00 ~ 03:00	개포컵 결승 (2학년)	운동장
03:00 ~ 03:10	개포컵 시상식	운동장

④ 둘째 날 (8/30) 세부 일정

시간	일정	장소
01:00 ~ 01:10	제9회 구룡제 개막식	강당
01:10 ~ 02:00	변화할래 페스티벌 1부 새로움	운동장 야외무대
02:10 ~ 03:40	각 동아리 축제 (GEM 팝송콘테스트 등)	멀티미디어 실 등
03:50 ~ 05:20	변화할래 페스티벌 2부 어울림	운동장 야외무대
05:20 ~ 06:50	각 동아리 축제 (KPBS 방송제 등)	멀티미디어 실 등
07:00 ~ 08:50	변화할래 페스티벌 3부 나아감	운동장 야외무대
08:50 ~ 09:00	제9회 구룡제 폐막식	운동장 야외무대

⑤ 돌발 상황 시 대처 방안

① 기후상황 악화

우천시

- 실내 행사는 그대로 진행한다.
- 실외 행사 중 주 공연 시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강당으로 이동한다.
- 강당에서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실내 행사를 관람하도록 사회자는 유도한다.
- 관람자가 무질서하게 건물로 대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요원은 방송과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대피시킨다.
- 방송반과 진행요원은 물에 젖으면 안되는 방송장비 및 기계등 장비들은 신속하게 건물로 옮긴다.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

- 부상자가 이동이 가능한 경우 양호실로 이동시킨다.
- 부상자가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요원의 도움으로 양호실로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가 클 경우 진행요원은 신속히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관람자간 폭력 및 구타 발생

- 진행요원은 우선 물리적 폭력을 중단시킨다.
- 최대한 진행요원은 중립을 유지하며 중재한다.
- 진행요원의 능력으로 중재가 불가능할 경우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
- 부상정도가 클 경우 진행요원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동아리간 호객행위로 인한 동아리 간 마찰 발생

- 사전에 호객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각 동아리 부장에게 주지시킨다.
- 호객행위를 할 경우 축제 후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

찬조공연 예정자 무통보 미참석

- 연락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관객에게 정중히 사회자는 사과를 한 후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 교통마비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사회자는 관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다음 순서부터 진행 후 참가자가 도착했을 경우 바로 공연을 진행시킨다.
- 무통보 미참석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시간과 상황을 알린다.

전시장에서 강매로 인한 불만 발생

- 사전에 동아리 부장을 통해 강매를 할 경우 축제 후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
- 행사장 곳곳에 신고지를 배치하여 강매를 하는 전시장을 적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 소음으로 인한 주변 거주 주민들의 불만 발생

- 최대한 일몰후 마이크 사용을 자제한다.
- 사전에 폭죽은 무음 폭죽을 구입한다.
- 실제 불만이 들어올 경우 개포고 축제가 지역 축제임을 이야기하고 설득시킨다.

제9회 쿠통제의 예산

1] 예상 지출 내역

진행비 : 10만원

품목	단가	수량	가격
이름표 목걸이 (30개입, Formtec CF 2387)	18,000	1	18,000
무전기 대여	4,000	10	40,000

개막식 : 30만원

품목	단가	수량	가격
현수막	50,000	6	300,000
무전기 대여	4,000	10	40,000

폐막식 : 69만원

품목	단가	수량	가격
불꽃놀이 (파이어월드)	600,000	1	600,000
야광스틱 10" (파이어월드)	3,000	10	30,000
스파클라 18" (10개입, 파이어월드)	3,000	20	60,000

변화할래 페스티벌 : 200만원

품목	단가	수량	가격
무대 설치 (30평, 이벤트에그)	2,000,000	1	2,000,000
조명 설치 (40Kw, 이벤트에그)			
음향 설치 (5Kw / 악기 설치, 이벤트에그)			
무대 걸개 (무상지원, 이벤트에그)			

■ 개포컵 : 42만 4천원

품목	단가	수량	가격
음료 지원 (파워에이드)	1200	20	2,4000
트로피	50,000	2	100,000
음식점 상품권 (우승팀 상품)	120,000	2	240,000
스포츠 용품 상품권	30,000	2	60,000

■ 홍보비 : 65만원

품목	단가	수량	가격
포스터·팜플렛 디자인	무상지원		
포스터 인쇄		300	600,000
팜플렛 인쇄		3000	
현수막 제작	50,000	1	50,000

■ 학생회 : 20만원

- 안내도 및 표지판 제작
- 이벤트 (설문조사표 제작, 자율부 음식 판매, 로또 이벤트 준비)

② 예상 지원 내역

- 학교 예산 지원 (총액 415만원)
- 동창회 예산 지원 (미정)
- 학부모회 예산 지원 (미정)
- 스폰서 예산 지원 (팜플렛에 광고 게재 대가로 지원)

메인 페스티벌 프로그램

29일	10:00 ~ 12:00	각 부서 공연 (강당)	
		각 부서 전시	
	12:00 ~ 14:00	개포컵 결승 (1학년)	학생회
	14:00 ~ 15:00	개포컵 결승 (2학년)	학생회
	15:00 ~ 15:30	개포컵 시상식	
30일	12:30 ~ 01:00	제9회 구룡제 개최식 “revolution!”	학생회
	01:00 ~ 02:00	메인 페스티벌 1부	학생회
	02:00 ~ 04:00	GEM POP-CON	GEM
	04:00 ~ 05:00	메인 페스티벌 2부 “어울림”	학생회
	05:00 ~ 07:00	KPBS 방송제	KPBS
	07:00 ~ 08:00	메인 페스티벌 3부 “나아감”	학생회



안녕하세요? 개포고등학교 학생회입니다. 저희 학생회가 제9회 구룡제의 팸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은 A5 사이즈 (전면 칼라)로 제작되며, 각 동아리 당 A6 정도의 공간이 제공될 것입니다. 각 동아리 소개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주세요.

동아리 명 |

동아리 소개 | (동아리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구를 써 주세요)

담당 선생님 |

동아리 부장 |

동아리 부원 |

장소 | (장소 변경을 희망하시면 원래 장소와 희망 장소를 모두 적어주세요)

전시 주제 |

프로그램 내용 |

특별 주문 사항 | (그림이나 사진을 삽입하고자 하시면 적어주세요)

작성자 (학년·반·이름) |

개포고등학교 ‘구룡제’ 후원 요청

발 신 : 개포고등학교 학생회

제 목 : 개포고등학교 축제 ‘구룡제’ 후원안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개포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 다 음

명 칭 : 제9회 **구룡제** -변화할래(變和割來)-

시 기 : 2003년 8월 29, 30일 양일간

내 용 : <별첨1> “제9회 **구룡제** 기획안” 참고

3. 저희 개포고등학교 학생회는 이번 구룡제가 청소년 사업을 하시는 귀사의 이념에 부합하는 행사이며, 귀사께서 후원하시면 큰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따라서 저희 학생회에서는 귀사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방 식

- 구룡제 팜플렛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
(세부금액은 팜플렛 디자인이 완성된 후 결정)
- 구룡제 팜플렛은 A5 크기 16면 전면 칼라로 제작될 예정이며 3000장 정도가 강남구 일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될 것임.
- 또한 개포고등학교 2004학년도 신입생 등록 시 학교 홍보 자료로 제공됨

5. 후원 의사가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회장 김 원 (011-888-0246)에게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포고등학교 학생회
Gaepo HighSchool Students' Association

안녕하십니까? 개포고등학교의 학생회장 김 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개포고등학교에서 이번 8월 30일에 제9회 **구룡제**를 개최하게 되어 귀사의 후원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개포고등학교 제9회 **구룡제**는 이전의 고등학교 축제와는 다른 페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새로움, 어울림, 나눔, 그리고 나아감**>으로, 이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은 포스터와 팸플릿, 그리고 테마송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9회 **구룡제**의 주제는 귀사의 이념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등학생 대상의 사업을 하시는 귀사께서 구룡제를 공식 후원하시고 팸플릿에 광고를 게재하신다면 개포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강남구 내의 많은 학생에게 귀사를 광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포고등학교 학생회는 제9회 **구룡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이기에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귀사가 저희 구룡제를 후원해 주신다면 귀사에게도, 그리고 저희 학생회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포고등학교 제9회 **구룡제**의 세부 사항은 함께 보내드리는 공문과 기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포고등학교 학생회장 김 원

〈제10회 구룡제〉를 꿈꾸는 후배님들에게

▶ 축제 준비를 하면서 꼭 생각할 8가지

- 다른 학교 축제를 분석하라! (지금부터)

다른 학교 축제 팸플릿을 모두 수집하고, 또 몇 개 학교는 방문해서 배울 점은 배워온다. 다른 학교 학생회장과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보다 전통이 오래된 학교의 학생회장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친해져라.

- 새 학생회가 선출된 그 때가 바로 축제의 시작이다. (학생회 구성 직후)

게으름은 화를 부른다.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 하자.

- 축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라. (학생회 구성 직후)

축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특활부와 학생회 임원, 동아리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 예산 분배권을 받아오라.

축제의 예산 분배권을 받아와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하라. 동아리들에게 예산을 분배하여 학생회의 권위를 높여라.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을 줄여라.

- 주제가 있는 축제가 살아있는 축제이다. (축제 준비위 구성 직후)

축제 준비의 시작은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주제가 축제의 모든 방향을 결정한다. 제9회 구룡제의 '변화 할래'처럼 좋은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보라.

- 축제의 내용은 학생회가 아닌 동아리가 결정한다.

학생회는 동아리들이 좋은 전시를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동아리 부장들과 수시로 만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알아야 한다. 특히 방송부, 밴드부, 댄스부 등에게는 더더욱 신경 써야 한다. 학생회 선출 직후와 방학 중 2~3번, 축제 직전 1번의 축제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의 생각을 이해시켜라.

- 열린학교에 참가하라. (여름방학 중)

열린학교에 학생회장만이 또는 몇 명만이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반드시 전원이 참석하라. 열린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간의 회의를 통해 축제의 큰 틀을 만들어가자.

- 기획안, 예산, 팸플릿 제작, 연예인 섭외는 꼭 1~2달 전부터 준비하라! (여름방학 중)

기획안이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꼼꼼히 기획안을 준비한다. (혁인이 뉘^^)

예산 편성은 반드시 축제 2주 전까지 완성하라. 그 후에 들어오는 돈은 예산 편성에서 일단 제외해라. 모든 수입, 지출은 반드시 총무의 손을 거쳐야 한다. 총무는 모든 내역을 정리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처리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들어'온' 것만 한다. 들어'올' 것에 대한 예산 집행은 위험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팸플릿 제작은 1달 전부터 준비한다. 팸플릿 제작 1주일 전까지 팸플릿 세부 시안과 안에 들어갈 글귀

를 모두 완성해야 한다. 홍보부는 방학 전에 각 부장들에게 팜플렛에 들어갈 내용을 받아라.

연예인을 섭외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미리 미리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섭외하는 것이 섭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축제를 일주일 남겨두고 연예인을 섭외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 축제 준비를 쉽게 하는 8가지 원칙

- 역할분담은 필수다.

역할분담이 안되어 있다면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낭비한다. 학생회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분담시키고, 학생회장은 전체를 총괄하게 해라. 학생회장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전체적인 진행이 엉망이 된다.

- 서로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자.

매일 축제 준비가 끝나기 10분을 남기고 각 부서별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자. 자신이 맡은 부분이 진행 상황을 남이 모른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일을 쉽게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선생님께 보고 드리자. 선생님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것들을 지적해주시고, 보고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우리 책임이 되어버린다. 선생님을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자. 될 수 있으면 10분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께 매일 전달하자.

- 자주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라.

일이 안 풀린다 싶을 때는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라. 교장선생님과의 대화는 가끔 기적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아주 가~꿈)

- 선배님들을 이용하라.

선배님들께 반드시 미리 미리 연락하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라.

- 서로를 믿어라.

축제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학생회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면 더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그냥 서로를 믿고 의지해라. 힘든 일은 솔직히 서로에게 말하라.

- 조금씩 양보하라.

축제 준비 기간 동안에는 사생활은 잠시 미뤄두자. 부모님과의 관계, 공부 걱정...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포고등학교 학생회에 들어왔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양보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항상 꿈과 희망을 갖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구룡제는 개포고등학교의 혼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구룡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결코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 행운의 여신은 항상 꿈꾸는 여러분의 편이다. 큰 꿈을 가지면 그만큼 좋은 축제가 될 것이다. 꿈꾸어라.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그날 마음껏 즐겨라.

꿈, 열정, 노력... 성공하는 구룡제를 만드는데 이것들로 충분하다.

2 서울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가온누리마당)

중대부고 축제 요약

가. 시기

- 9월 초순

나. 축제 과정

- 첫째 날 : 밴드부 공연, OX 퀴즈, 모의재판, 퀴즈왕 선발대회, 동아리 활동, 먹거리 장터, 선생님 장기자랑
- 둘째 날 : 가요제, 시인 초청 강연회, 방송제, 중앙인들의 만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등
 - 연예인 (SeeYa 씨야, MtoM 엠투엠, 데이)
- 재단 학교 (중앙대) 이므로, 중대부속 유치원, 초,중,고,대, 동창회까지 어울리는 축제의장이었음

다. 축제 기획

- 중대부고 학생회 부서가 한 프로그램씩 직접 기획, 주관하였음
- 방학 내내 학생회에서 회의를 통한 기획 및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맡아 담당 지도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인 구성을 하였음.
- 축제 당일에는 학생회 임원들이 모두 정장을 입고 진행 (정장 따로 맞춤)

라. 축제 홍보

- '중대부고 클럽'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 축제 팸플릿 3,000부를 제작, 배포

수록 자료 (2006년 중대부고 축제, 학생회 대표 최성호)

- 축제 행사 내용 및 업무 담당 표 & 행사 일정표
- 축제 준비 관련 긴급회의 회의록
- 긴급회의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기획위 전체 회의
- 제 1회 대토론회(모의재판) 기획안 - 총무부 기획/주관
- 장기경연대회 기획안 - 경제선도부 기획/주관
- 선생님 장기자랑 코너 - 문화부 기획/주관
- 축제 강평회
- 축제 후 학교 홈페이지 웹진에 올라온 축제에 대한 기사

가온누리마당 행사 내용 및 업무 담당 분담 표 ('06 9/1~9/2)

행 사	행사 내용	활동 내용	업무담당 학생
특별 행사	개막식/OX퀴즈	행사 진행/관리	회장단
	중앙인의 어울림	행사진행/관리	복지부
	선생님 노래방	섭외/ 진행	경제선도부
	대동제/폐막식	행사진행/질서지도	학생회, 자율부
	대토론회	행사진행/관리	총무부
	도서 퀴즈 대회	행사진행/관리	도서반
	시인과의 대화	행사진행/관리	문예반
공연 마당	락페스티벌	행사진행/관리	허문탁
	방송제	행사진행/관리	신재명
	가요제/댄스 경연	행사진행/관리	홍보부
전시 마당	미술반	작품 전시	강진아
	천문반	별자리 퀴즈/사진 전시	김지현
	만화창작반	시사 풍자만화 전시	이승민
	영상제작반	영상제작상연	박규준
	일본문화반	일본 문화 전시/게임	전찬중
	전산반	게임 및 튜닝 전시	선우희범
	영화감상반	영화 상영과 전시	최민영
	영자신문반	신문 전시 및 게임	정혜연
과정 활동	즐넘기 대회	행사 진행 및 관리	체육부, 공현구 양재준, 안혁원, 박정득
	탄산음료 마시기 대회		
	닭싸움		
	제기차기		
	친구 안고 오래 서있기		
	문자 빨리 치기		
놀이 마당	농구반	물풍선 던지기	변윤환
	헬스반	팔씨름, 풍선 터트리기	김현경
기타 활동	전시마당	특활부서/동아리 관리	총무부
	먹거리/바자회	도우미 역할, 설치/해체	자율부
	개회 및 대동제 질서지도	질서 지도/행사도우미	학생회
	방송	방송시설 확인/안내	방송반
	시설	마당별 시설 점검	학술부
	쿠폰 인쇄	좌동	학술부
	프레카드 게시	좌동	홍보부/학술부
	차량 통제	차량통제/학생외출단속	
	안내	안내/게시/전시물배부	문화부
	환경봉사단	모집 및 관리/운영	교육정보부
	시상품 관리	좌동	회장단
	예, 결산	예, 결산	회장단, 학생회계

축제 세부 일정표 (06년 9월 1일 ~ 9월 2일)

날짜	장소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1 일 (금)	중앙 무대	개막식 (13:00~13:30) ○×퀴즈대회 +락 +찬조Dance (13:30~14:30) 선생님 노래자랑(16:30~18:00)											
	운동장	과정 활동 (14:30~15:30)											
	교 실	전시 마당 (동아리, 특별활동) (15:00~18:00)											
	강 당	도서반 퀴즈 (15:00~17:00) 락 공연 (17:00~)											
	대회 의실	대토론회 (15:00~)											
	주차장	바자회 및 먹거리 마당 (13:00~17:00)											
2 일 (토)	중앙 무대	가요제 결선 (11:00~12:30) 중앙인 어울림 (15:00~17:00) 락 페스티벌 (12:30~13:30) 가온누리 밤 (18:00~)											
	강 당	방송제 (13:00~14:30)											
	교 실	전시 마당 (동아리, 특별활동) (11:00~15:00)											
	주차장	바자회 및 먹거리 마당 (11:00~17:00)											

두 가지 표는 2006년 가온누리마당 자료임.

위와 같은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기 위해 학생회가 방학 중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다. 다음 장부터 있는 회의록과 기획안은 이 때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작성된 것이다. 행사는 부서 별로 기획하였기 때문에 행사마다 기획안 양식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축제 관련 긴급 회의

중대부속고등학교 제 60 대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 성격	전체 회의 (O) / 부서별 회의()	회의 주체자	김백건 전 학생회장
회의 날짜	200 6 년 8 월 2 일 수요일 5 시 ~ 8 시 (총 3 시간)	회의 장소	타워팰리스 회의실

참석자 (부서, 이름)	<p>(회장단) 전준형, 조상아, 김지호 (총무부) 최성호, 나인애, 이수현, (학술부) 박정위, 노지현, 최우준, (복지부) 최진영, 이지석, 유호선, (체육부) 김성원, 장민아, 정철 (홍보부) 김승욱, 김지은, 강은경, (문화부) 이지민, 이상민, 이고은, (경제선도부) 윤정길, 이한, 박다영, (교육지원부) 정초록, 김문식, 박창성 - 총 18명</p> <p>진한 글씨 - 참가자, 나머지는 불참자.</p>
회의 목적 및 주제	<p>다음달 열리는 중대부고 축제 준비를 위해서, 김백건 전 학생회장이 주체하여 학생회 회의를 열었음. 이번 회의에서 김 전 회장은 2004년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2시간이 넘게 회의를 함. 특별위원회를 기획, 홍보, 대외협력 세 개로 나눔. 김 전 회장의 내용과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밑에 따로 첨부함.</p>
기타 사항	<p>불참자 중 (경제 선도부) 이한 - 수련회 (학술부) 박정위 - 몽골로 봉사 활동</p>

※ 회의 세부 내용

오늘 회의는 우선 김백건 전 전교회장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노하우를 전달한 다음, 학생회 임원 전체가 회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이 8월 2일이고 축제는 9월 1일부터이다. 축제가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김백건 전 전교회장은 회의에서 축제 준비, 진행, 담당 등의 노하우를 이번 학생회에 전달해 주었다. 우선 단대부고의 예를 들었는데 단대부고는 8월 25일과 26일 축제를 한다. 단대부고 전교회장은 우리 학교보다 늦게 뽑는데, 단대부고에서는 이미 6월 달부터 축제 구상에 들어가서 현재는 팸플렛과 포스터 제작, 재정 마련, 연예인 섭외 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 학교는 축제가 1주일 정도 늦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준비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 가장 급한 일은 재정, 연예인, 팸플렛과 포스터 및 무대 장치이다. 재정은 스폰서로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여러 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의견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축제 준비를 위해 스폰서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은 최소 1달 전에는 연락을 해야 그들도 일정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며, 더군다나 토요일은 그들에게도 피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맥을 찾아보고 기획사와 계약하고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팸플렛과 포스터도 최소 2주 최대 4주 전에는 인쇄 업체에 넘겨야 한다. 그러려면 아무리 늦어도 개학 전 8월 16일 정도에는 팸플렛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모두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스폰서 받은 업체의 배너가 완성되어야 한다. 당연히 스폰서는 이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무대 장치도 알아봐야 하고, 축제 전체적인 일정과 이에 따른 세부 기획안도 짜야 된다. 오늘이 8월 2일이므로 이 많은 일들을 하기에 현재 시간이 없다.

현재 우리 학생회는 일 진행(예: 스폰서를 받는 일과 행사 기획 등)을 모든 부서들이 조금씩 분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3개의 축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나눈다. 특위는 기획위, 대외협력위, 홍보위이다. 기획위원회는 축제 행사의 기획을 하는 위원회고 위원장은 조상아, 부위원장은 최성호가 맡는다. 대외협력회는 대외적인 일을 하는 위원위로 위원장은 윤정길이다. 홍보부는 축제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전준형, 부위원장은 김지호가 맡는다. 밑에 표를 참고할 것.

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장: 조상아 부위원장: 최성호	위원장: 윤정길	위원장: 전준형 부위원장: 김지호
나인애, 이수현 최진영, 유호선, 이지석 이지민, 이상민, 이고은 강은경, 박다영,	이한, 박정위, 최우준, 노지현	김성원, 정철, 장민아 김승욱, 김지은 정초록, 김문식, 박창성

※ 회의 불참자들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임의로 배정되었으므로, 희망하는 사람은 다른 부서로 옮겨질 수 있음.

기획위는 축제의 전반적인 일을 기획한다. 축제 행사 중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모두 기획위에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내용도 결정한다. 세부 계획은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시간 안배를 하고, 얼마나 오래 진행할 것인지, 사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행사에 필요한 도구들은 어느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대외협력위는 무대 업체와 이벤트 업체(풍선, 장식도구)와 인쇄, 디자인 업체 등을 알아본다. 다만, 인쇄 및 디자인 업체는 김백건 전 회장이 싸고 잘 해주는 업체를 알고 있으므로 알아봐 주기로 했다. 대외협력위의 다른 일로는 '중앙인의 어울림' 행사 때 중대부속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과 중앙대학교에서 축제 때 공연할 사람들을 알아보고 연락한다. 다른 학교에서 축제 때 공연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외적 협력도 한다. 마지막으로 연예인 섭의를 담당한다. 참고로, 학교 축제 비용과 연예인 초청 비용은 별개로 되어 있다.

홍보위는 팸플렛, 포스터, 스폰서 및 기타 축제 홍보 활동을 한다. 위에 이미 썼듯이, 8월 16일까지는 팸플렛이 나와야 인쇄 업체에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약 1주일 정도 (8월 9일) 동안 스폰서가 완성되는 것이 좋다. 팸플렛은 들어갈 내용, 디자인과 전체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팸플렛은 한 장을 반으로 접은 것을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4의 배수로 페이지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한 페이지 수는 24장, 28장, 32장 등이고, 장수마다 가격이 다르다. 포스터는 500장이 최소 단위이다. 축제 홍보는 이것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나 학생회 클럽을 이용한 홍보 등,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면 된다.

이로써 각 위원회의 위원들과 업무가 정해졌다.

김백건 전 전교회장이 회장이었을 2004년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 당선 이후 매주 점심시간에 학생회 회의를 갖고 매우 다양한 일들을 토의했다. 축제에 관해서도 학생회 회의 때 자연스럽게 토의가 됐으며, 항상 만나서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맡은 일을 자연스럽게 잘 알고 있었다. 축제 모토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 3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축제' 였다. 학부모님들은 먹거리 장터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옷놀이를 했고, 선생님들은 장기자랑 행사를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가하셔서 좋았다고 한다. 이것 외에 중앙인의 어울림, 가요제, 락 페스티벌 등 여러 행사를 하였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캠페인도 하였다. 축제 이전에는 숙명여고와 함께 교문에서 교통지도를 했고,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헌혈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당시 학생회 담당 교사 이정수 선생님께서 총 행사를 맡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교사, 학부모가 스폰서를 위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번 학생회 담당을 맡으신 양재준 선생님께서는 학생회가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학생회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김백건 전 회장은, 축제를 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하되, 축제 진행 노하우를 작년 학생회나 재작년 학생회와 이정수 선생님 등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이후에는 각 위원회 별로 따로 모여서 기획위는 기획위 회의를, 홍보위는 홍보 활동을 했으므로 이것은 따로 올리도록 한다.

회의록 담당 부서 총무부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축제 준비 - 기획위 전체 회의

중대부속고등학교 제 60 대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 성격	전체 회의 () / 부서별 회의(O)	회의 주체자	특별팀장 조상아
회의 날짜	200 <u>6</u> 년 <u>8</u> 월 <u>2</u> 일 <u>수</u> 일 <u>9</u> 시 ~ <u>10</u> 시 <u>30</u> 분 (총 <u>1.5</u> 시간)	회의 장소	타워팰리스 회의실

참석자 (부서, 이름)	<p>(회장단) 전준형, 조상아, 김지호 (총무부) 최성호, 나인에, 이수현, (학술부) 박정위, 노지현, 최우준, (복지부) 최진영, 이지석, 유호선, (체육부) 김성원, 장민아, 정철 (홍보부) 김승욱, 김지은, 강은경, (문화부) 이지민, 이상민, 이교은, (경제선도부) 윤정길, 이한, 박다영, (교육지원부) 정초록, 김문식, 박창성 - 총 7명</p> <p>진한 글씨 - 참가자, 나머지는 불참자.</p>
회의 목적 및 주제	<p>바로 전 회의(8/2 학생회 전체 회의)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짜고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따로 회의를 진행함. 결정된 사항은 다음 장에 첨부함.</p>
기타 사항	<p>이번 참석자는 8/2 학생회 전체 회의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 중 기획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였음.</p>

※ 세부 사항

기획위 앞으로의 일정

날 짜	계 획
8/03 (목)	이전 축제 자료와 여러 자료들 모으기. (담당: 위원장, 부위원장)
8/03 (목) ~ 8/04 (금)	모인 자료들 선별하고 금요일 저녁, 클럽에 각 위원들이 해야 할 일 공지. (담당: 위원장, 부위원장)
8/05 (토) ~ 8/06 (일)	각 위원들이 맡은 일을 함. (담당: 모든 위원)
8/07 (월)	기획위 1차 회의 (주제: 세부 계획 정하기.)
8/07 (월) ~ 8/08 (화)	세부 계획 짜기 (담당: 모든 위원)
8/09 (수)	기획위 2차 회의 (세부 계획 종합 + 간부수련회 때 할 것 토의) - 온라인으로 할지는 미정.
8/10 (목) ~ 8/12 (토)	간부수련회 중 결과 보고 및 토의, 수정
8/14 (월)	최종 마무리가 이 때까지 완성되어야 함.
8/15 (화)	학생회 전체 회의(?) - 미정.

기획해야 할 축제 행사들

1. 개회식
2. 중앙인의 어울림
3. 대토론회
4. 장기자랑 (가요제, 미스미스터)
5. 가온누리의 밤
6. 환경봉사단 질서유지
7. 선생님 장기자랑 (신설)
8. 주먹이 운다 (신설) - 퀴즈왕을 이것으로 대체
9. 반 대항 행사 (선생님들의 출석부 빨리 외우기, 노래 1초 듣고 맞추기, 컷속말 전달, 우리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등) - 더 논의가 필요함.

※ 학부모 마당

※ 먹거리 장터

※ 클럽 전시

60-2006-2-1호

담당부서 : 총무부 | 담당자 : 최성호 나인애 이수현

담당교사 : 박정득 선생님

중대부고 대토론회 - Speak Yourself!

- 이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표현한다

목표 : 축제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의 재판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대상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 2학년

■ 장소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2층 대회의실

■ 일시 : 축제 둘째 날인 9월 2일 오전에, 약 1시간 정도 진행

■ 세부계획 :

1. 주제 - 두발 규제
2. 형식 - 학운위, 학생위, 학부모위가 함께 2명의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해 각 입장을 밝히는 형식
3. 인원모집 - 개학 후 각 반에 공지하고 14~16명 정도 선착순 신청 받음
(최성호 010-9871-2886)
- 신청 인원이 많거나 적으면 추후에 다시 논의함
4. 예비소집 - 축제 며칠 전에 신청자를 소집하여 각자 원하는 역할을 정함
5. 행사 - 학생회 운영위원회 총무부에서 사회를 맡는다.
- 사회자는 미리 대토론회의 큰 흐름을 정하고, 각 발표자들은 이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 대토론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배심원으로 하고 재판의 결론을 내린다.
- 방송부 2~3명 정도 섭외하여 모의재판 동영상 촬영 및 학교 홍보용으로 활용 (미정)
6. 시상 - 참가자들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 기타사항 : 세부 일정은 뒷장에 첨부하고, 그 외의 일은 학생회 담당 선생님과 협의한다.

■ 예산 : 합계 75,000원, 자세한 예산안은 뒷장에 첨부

■ 실행 : - 학생회 총무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토론대회(모의재판)를 검토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 각 반 담임선생님께서도 학생들에게 토론대회 참가를 적극 권유하여 주십시오.

작성: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총무부

중대부고 대토론회 Speak Yourself! 세부 계획

학생운영위원회 총무부

1. 취지

중대부고 축제의 본래 목표는 그 동안 CA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발표이고, 동시에 중대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축제에서 발표의 내용은 없어지고 다만 순간적인 유희가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모의재판을 통한 토론 과정에서, 중대인은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축제는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도록 한다.

2. 목표

- 모의재판의 형식을 빌려서 중대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전까지는 없었던 축제 중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축제 문화를 만든다.
- 앞으로 토론회를 학생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 학생회가 직접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회의 주체성을 높인다.

3. 행사 개요

이번은 첫 토론회기 때문에, 내용의 충실성보다는 후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연속성에 더 초점을 둔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한다. 후년에 진행될 토론회부터는 점차 내용에 더 충실하도록 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두발 규제'를 토론회의 주제로 한다.

토론회의 형식은 모의재판의 형식을 빌린다. 전체적인 상황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 1명이 끝까지 자신들의 머리를 깎지 않으며 규정을 어긴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에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 공개 공청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운영위원회와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참가했다. 여기서 두 학생은 자신들을 변호하고, 학운위와 학생위, 학부모위는 각자 그들의 의사를 표현한다. 형식은 모의재판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토론회인 셈이다.

이제 각 위원회의 특징적인 사람들을 약간 패러디해서 3~4명 정도를 정한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까지 추가하여 14~16 정도의 역할을 정해 둔다.

그리고 토론회 신청자를 받아 방금 정한 역할에 각각 1명씩 배치한다. 토론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토론회 담당 부서와 담당 선생님이 함께 정하되, 세세한 부분은 정하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맡긴다.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각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축제 당일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방향은, 약간의 풍자성을 띠는 쪽으로 한다. 참가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풍자적으로, 때로는 익살스럽게 하면서 내용에도 충실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최대한 많은 구경꾼들을 모으기 위해 홍보를 한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은, 토론이 끝난 후 짧막하게 자신의 의견을 쓰거나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쓰고 갈 수 있는 보드판을 만들어서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방송반 2~3명 정도를 섭외하여 토론회 과정을 녹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것은 내년에 개최될 토론회 홍보물로 쓰거나, 학교 축제 홍보물로 쓰도록 한다.

4. 행사 추진 일정

- 7월 24일(월) ~ 7월 28일(금) : 초안 작성 및 결제
- 7월 28일(금) ~ 8월 21일(월) : 토론회 계획 세부화 및 완성 (담당 선생님과)
- 8월 21일(월) ~ 8월 26일(토) : 토론회 홍보 및 참가자 신청
- 8월 28일(월) : 최종 참가자 발표 및 역할 결정, 토론회 세부 내용 설명
- 8월 29일(화) ~ 9월 01일(금) : 토론회 준비 (대회의실 준비, 포스터 제작)
- 9월 02일(토) : 토론회 개최

5. 예산안

항 목	산출내역
참가자 시상	140,000원 (10,000원 × 14명)
음료	20,000원 (1.5L 음료 × 8)
과자	3,000원 (초코파이 × 2)
종이컵, 접시	2,000원 (각각 1,000원)
홍보용 사탕	4,000원 (사탕 3~4 봉지)
대회의실 장식비용	11,000원
합계	180,000원

2006학년도 중대부고 가온누리마당 기획서

- 장기 경연대회 -

1. 장기 자랑의 취지

- 평소에 알 수 없었던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고, 학생들 모두에게 가온누리마당의 재미를 배로 느끼게 하는데 있음.

2. 주관 부서 - 진로진학부, 학생부, 학생회 경제 선도부

3. 대상 : 중대부고 1, 2학년 재학생(남여 두 반 합친 학급단위)

4. 장소 : 중대부고 중앙무대

5. 일시 : 회의 후 결정한다.

6. 경연 방법

(1) 동 학년의 두 개 학급을 한 팀으로 만들어 팀별 경연 대회

(2) 참가 종목은 미스·미스터(남장여장), 가요, 댄스, 코미디, 중창 등 팀별로 자유롭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음.

(3) 어느 특정 종목에 많은 팀이 출연했을 시 입상 대상에서 제외함.

(4) 공연 시간을 고려해서 예선을 치를 수도 있음.

(5) 각 팀 대표(학급 회장)는 8월 27일까지 종목 및 경연 내용을 학생회 경제부로 제출할 것.

(6) 심사 위원은 학교 선생님으로 정함(담임교사 제외)

7. 세부계획

▷ 가요제 - 사회자는 회의 후에 결정한다.

- 예선

(1)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사전에 담당선생님께 말할 것

(팀을 이루어 참가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함)

(2) 노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예선 때 노래를 부를 순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함

(4) 심사는 음악과 선생님 또는 음악계 관련 인사가 담당함

(5) 6~7팀 정도를 본선에 진출시킬 계획

- 본선

(1)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서대로 본선을 진행 한다.

(2) 심사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또는 팀)이 우승한다.

(3) 준우승 팀까지 시상할 예정(자세한 것은 추후결정)

▷ 미스·미스터 중앙 - 사회자는 회의 후에 결정한다.

(1) 반별로 합쳐 14개 팀으로 구성하는데 제비뽑기로 결정함

(2) 추첨을 통해 결정된 남녀합반 팀 내에서 참가할 의사가 있는 남, 여 학생은 각각 여장과 남장을 하는데, 주제를 한 가지씩 정해야 한다.

(3)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4) 각 팀 내 참가자들은 자유로이 선정한 주제에 부합하는 연기를 한다.

(5)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들이 우승한다.

8. 심사 기준

준비 정도(20), 공연 내용(30), 관객 호응(30), 공연 아이디어(10), 무대 매너(10)

9. 유의사항

- (1) 가요제에 타 학교 학생과 같이 팀을 이루어 참가하는 팀은 그 모집 단위를 5팀 이내로 제한할 예정임
- (2) 가요제 본선 진출자(또는 팀) 중에 타 학교 학생과 본교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있다면 그 팀 수를 1팀으로 할 것
- (3) 무대 공연 인원은 제한 없음 ex)중창 - 30명도 가능, 남장여장 - 10명도 가능
- (4) 개인이 참가해도 무관하나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움

10. 재정

- 상장 : 우승, 준우승 참가자들에게 수여함
- 상품 : 우승, 준우승 반(또는 팀) 구성원에게 상품을 제공함(상품 품목은 추후결정)

11. 실행

- 최종 사항은 담당선생님과 합의 하에 결정할 예정
-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후에 장기 자랑 우승, 준우승 팀에게 수여할 재정을 최대할 예정

작성자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전교차석부회장 김 지 호(인)

중대부고 가온누리 문화제 - “선생님 장기자랑 코너”

《취의(趣意)》 - 중대부고의 제명(祭名)은 가온누리제이다. 가온누리란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고어이다. 모름지기 세상의 중심에 서려면 이에 걸맞은 중용과 상호협력의 도리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평소의 상호 형식적이고 유통하지 못한 사제관계를 사회생활의 대선배인 선생님들이 먼저 벗어나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대상》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1, 2학년 담당 선생님.

《일시&장소》 - 2006. 09. 01(금) 14:00 / 중앙무대

《코너진행》 -

1. 개인 또는 5명 이하의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 각각 진행.
2. 참가 종목은 개그, 댄스, 가요, 중창, 마술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
3. 특정 종목에 팀이 과도하게 몰리는 경우 커트라인을 적용함.
4. 공연 시간을 고려하여 예선을 치를 수도 있음.
5. 각 팀의 대표는 8월 27일까지 종목 및 코너 내용을 학생회 문화부로 제출할 것.
6.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학생회 간부 또는 학생 희망자에 한하여 모집.
7. (시상 - 불확정.)

《심사기준》 - 준비(20), 내용(20), 무대적응(10), 관객호응(20), 독창성(20), 태도(10)

《유의사항》 -

1. 팀의 구성은 1명~5명으로 함.
2. 코너 출전은 10팀 내외로 한정하며 이외 참가 팀이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출전.

《주관부서》 - 학생회 문화부(이상민), 학생부

2006학년도

중대부고 '가온누리' 찬조 공연 참가 신청서

1. 참가구분에는 ○를 해 주세요.
2. 준비물에는 '중대부고'학생회에서 준비해 줄 내용을 기록해 주십시오.

참가 구분	개인	마 당							
		전시	공연	놀이	장터	기타			
	단체								
소속			대표자			전화번호			
참가자 명단									
제 목									
준 비 물									
개 요								일 시	
								시 간	
								소요시간	

2006. . .

2006학년도 가온누리 문화제 강평회 결과 요약

문 제 점	발 전 방 향
행사 준비 시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의 의사 소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적극 활용 * 교사, 학생 상호 간 대화 창구 단일화(학생회, 자율부, 동아리 학생 및 지도교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 마련)
동아리 활동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동아리 육성(응원단, 전통놀이반, 연극 등) 필요 * 동아리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교사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요망 * 학술제가 가미된 행사 적극 장려 및 지원
행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행사 준비나 실시 과정을 기록해서 발전방향 모색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기간 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일에서 1일로 축소 * 기존 일정을 유지한다면 학사 일정에 있는 몇 개의 행사를 묶어서 진행

축제가 새롭게 태어난다 - 중대부고 2006 가온누리마당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중대부고의 축제 '가온누리 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는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다. 새롭게 모의재판이라는 행사를 기획하였고, 동아리 문예부에서는 시인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으며, 도서부에서도 작년부터 시작한 독서퀴즈대회를 이번 해에도 이어서 하였다. 학급 별로 나눠서 진행한 과정 활동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 몫을 하였으며, 선생님 장기자랑을 실시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전부터 중대부고 축제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중대부속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회가 참여한 중앙인의 어울림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축제 첫날에는 1시 중앙 무대에서 학생 모두가 참가하여 개회식을 하고 밴드부의 공연과 더불어 o/x 퀴즈를 하였다. 3시부터는 대회의실에서 모의재판, 강당에서 퀴즈왕 선발대회를 같이 실시하였다. 동아리는 각각 교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떡볶이, 떡꼬치, 잔치국수, 순대, 츄러스 등 다양한 것을 판매하였다. 4시 30분부터는 선생님 장기자랑이 1시간 가량 하고 첫날 행사를 종료하였다.

둘째 날의 본격적인 행사는 오전 11시에 가요제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후 1시에 대회의실에서 서정홍 시인의 강연회와 강당에서 방송부의 방송제 'CAN' 이 있었다. 이어서 3시부터 5시까지 중앙인의 어울림을 진행하였고, 6시부터 대동제를 실시하였다. 대동제 때는 학교 운동장과 도곡렉슬 사이의 문을 개방하여 도곡렉슬 주민들도 참가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자는 개그맨 윤성환이 맡았고 연예인 공연으로는 씨야, MtoM, 테이가 왔다. 중대부고 밴드부와 졸업생의 공연도 있었으며 타 학교 찬조공연도 볼거리였다. 대동제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끝났고 모두 해산하였다.

2006 가온누리마당이 더욱 값졌던 이유는 이번 행사를 중대부고 학생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관했다는 것, 그리고 동아리와 CA활동이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방학 내내 학생회에서 회의를 갖고 축제를 기획했으며, 각 부서 별로 프로그램을 맡아서 담당 지도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인 구상까지 하였다. 인터넷에 '중대부고 클럽'을 만들어 활용하였고, 축제 당일에는 학생회 임원들이 양복을 맞춰 입고 축제 진행을 하였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여러 행사의 활동사진에 글을 덧붙여 '2006 가온누리마당 포토북(photo book)'을 만들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책으로도 제작되었다. 이 책은 학교와 학교 도서관에 비치 보관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년 축제마다 이런 책이 만들어진다면 학교에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축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대부고 인터넷 신문부
최성호 soungho@empal.com

3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족제)

민사고 '민족제' 축제 요약

가. 시기

- 6월 하순 시행

나. 축제 과정

- 오전 : 오케스타, 사물놀이 공연, 작가 초청 강연, 증권 투자 대회 및 전시회, 마술 동아리
- 오후 : 먹거리 장터, 사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연극, 큐브, 보물찾기, 물풍선 던지기
- 종일 : 전시, 동아리활동, 카페, 게임대회 등
- 현금이 아닌 '민족화폐'를 통한 거래 (물론 처음에 현금과 교환)

다. 축제 기획

- 6월 초순부터 학생회에서 주관 및 계획
- 행정위원회에서는 축제 기획, 관리, 예산 배정을 진행
- 배정된 예산은 각 동아리와 문화기획부에서 공동으로 심의 및 집행
- 예산의 모든 집행 기록을 영수증 처리
- 입법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심의 및 검토
- 문화기획부에서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조리를 함께 하고 행정실에서 이를 지원
- 전야제 180만원, 민족제 300만 원 등 합 500여만 원을 사용

라. 축제 홍보

- 별다른 홍보가 없었음

수록 자료

- 민사고 학생자치회 행정위원장 노용석 님의 축제 수기와 사진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족제'

학생자치회 행정위원장 노용석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민족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 1학기 학생자치 행정위원장 노용석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민족제를 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민족제는 8년 전부터 매년 여름 개최되었고 2~3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는 학생회가 삼권분립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치·명예 위원회에서 입법·사법·행정 위원회로 나뉘어져 민족제 준비에 대한 역할 결정에 대한 부분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축제 기획, 관리, 예산 분배 등을 관리하였고, 입법위원회는 각 부서 및 동아리의 예산 분배,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민족제 행사 준비는 대략 20일 전인 6월 초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선 각 부서 및 동아리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서 및 동아리에서는 행정위원회를 통해 학생자치회비를 분배해 주었고 행정위원회와 문화기획부는 각 부서장 및 동아리장과 회의를 하여 조정을 하였고, 장소 등을 정하였습니다. 돈이 오고가는 활동이기에 매우 신중하였고, 입법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수증과 행사 진행에 대해 보고서를 자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와 문화기획부가 총 검토를 한 후 예산을 분배해 주었고, 추후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잦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족제 당일 점심을 '먹거리 장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조각 피자, 찹쌀 도넛, 팝콘, 닭꼬치, 국밥, 나초, 라면, 쥐포, 등등... 20개가 넘는 메뉴를 문화기획부에서 결정하고 영양사 선생님과 최종 검토를 합니다. 위생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축제인 만큼 고급스런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학교 행정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민족제를 준비하는 사이에 전야제는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야제는 체육관에서 공연도 보고 댄스파티도 즐기는 행사입니다. 문화기획부에서 공연신청을 받았고, 분위기 및 조건에 따라 공연 순서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회를 맡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분위기겠죠. 아직 밝은 6시부터 시작하여 밤늦은 11시에 끝났기 때문에 주변 조명과 음향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음향기기 및 조명을 담당자들에게 부탁하여 민족 전야제가 있기 하루 전에 기기세팅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폭죽, 스모크 등 주의를 요하는 장치도 있어서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 후 2주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변경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매년 파티 담당을 하신 학교 선생님과 함께 검토를 합니다.

홍보는 따로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여서 모든 학생이 그날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민족제 당일 거래할 때의 화폐는 현금이 아니라 '민족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진이 있는 민족화폐를 구입하는 것도 자연스레 홍보가 되었습니다. 1000원, 2000원, 5000원 권으로 사용되었고, 민족화폐를 사용하면 화폐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될 뿐더러 학생회에서 축제 전에 현금을 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 제작도 있었는데, 올해의 컨셉은 한지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여서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는 모두 문화기획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비록 저도 모든 스케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모든 자료는 저의 개인 자료가 아닐 뿐더러 민사고 모든 부서 및 동아리의 동의를 물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두 공개할 수는 없었고, 액수 및 장소 등 자세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제 당일 계획만 공개하겠습니다.'

21일 오후 6시 ~ 오후 11시 민족 전야제
22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민족 축제
22일 오후 7시 ~ 오후 9시 30분 민족 가요제

시간 - 제목 - 주최 순입니다.

진한 글씨체는 의무참석이고, 나머지는 자율입니다.

<22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민족 축제 스케줄>

09:30~10:00 민족제 개막식 - 행정

09:30~09:40 오케스트라 공연 - KMLA오케스트라

09:50~10:00 사물놀이 공연 - 사무침

10:00~12:30 작가 초청 강연 - 도서부

10:00~15:00 증권 투자 대회 및 전시회 - 증권동아리

11:00~16:30 Magic Cafe - 마술동아리

12:00~13:30 먹거리 장터 - 행정 및 문화기획부

12:00~13:30 사물놀이 공연 - 사무침

13:00~13:30 레크리에이션 대회 - 공공정보부

13:00~14:00 연극제 - Life Is Drama

13:00~15:00 Rubik's Cube 대회 - Twister (큐브동아리)

13:30~14:30 보물찾기 대회 - 역사기록부

14:00~15:00 물풍선 던지기 - 체육부

종일 - 김밥 만들기 대회 - Cooking Club

종일 - 네일아트, 팬시판매, 홈메이드 쿠키 - 경국지화

종일 - 문예창작 작품 전시 - 들국화

종일 - 옛 식생활 및 놀이 문화 체험 - 복고풍

종일 - 서예체험 및 서예골든벨 - 목향

종일 - 법정 드라마 상영, 전시물, 범죠헌장 체험, 수사 체험, 법의학 체험 - 죄와 벌

종일 - 불우이웃 및 친구에게 카드제작 - 하눌타리

종일 - 프라모델 작품 전시회 - KFC 프라모델 동아리

종일 - 몽골 전시전 - MUNESCO

종일 - 사진전시회 및 즉석사진벤티 만들기 - TTL 사진 동아리

종일 - 태양 흑점, 사진전, 플라네타리움, 별편지, 별사탕 배달, 와플,생과일주스 판매 - 애플파이 천체 관측 동아리

종일 - Face Painting, 낙서장, 벤티만들기, 콜라주 전시회 - SD Club

종일 - 보드게임 카페 - 도서부

종일 - 민족카페, 코코아, 냉커피, 핫커피, 홍차, 레모네이드,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쿠키 - 식품영양부

종일 -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 역사기록부

종일 - 민족오락실 및 게임대회 - 인터넷관리부

종일 - 티셔츠, 손수건, 천연 염색 - 환경부

종일 - 민족 포커 토너먼트 - 보드게임동아리

(이하 민족 전야제 , 민족 가요제 세부 내용 생략)

학생자치회비에서 전야제180만원 + 민족제300여만원 = 500여만원이 사용되었고, 이 중에 일부는 학교에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행사의 수익의 일부는 주최한 부서 및 동아리에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2학기 학생자치위원회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축제 사진 여러 개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락 밴드 PLZ 공연



▲ 드럼 솔로, 접니다



▲ 민족 오락실, 게임 대회



▲ 경국지화, 하늘타리



▲ 미스민족



▲ 사무침 사물놀이 공연



▲ 먹거리 장터



▲ 오케스트라 연주

4 안양 동안고등학교 (두드림&DoDream)

안양 동안고등학교 (두드림&DoDream) 축제 요약

가. 시기

- 9월 초순

나. 축제 과정

- 오전 : 동아리 카페, 학생회 이벤트 (OX퀴즈), 미술반 작품 전시회, 환경 캠페인, 동북공정 역사 속으로, 오후 공연까지 쉬는 시간에 학생회 임원들의 기획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상영.
- 오후 : 무작위 선발 춤추기, 동아리, 개인 참가자의 공연, 학생회 임원들의 난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연습해야하므로 부담이 크기도 함) 공연
- ‘소망지’라 하여 자신의 소원을 쓰는 이벤트를 진행
- 무대를 확장, 사용하였는데 가설무대의 안전성과 관객들과의 거리 확보 필요
- 선생님, 매점 아주머님, 버스 기사님, 영양사님 등 어른들의 옛날 사진 보여주고 누구인지 맞추기 등

다. 축제 기획

- 학생회 9개부서가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누고 다시 기획팀, 행동팀, 디자인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음. 이때 세세한 그룹을 지정하였으므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았음
- 상품은 문화상품권, 펜, 휴대폰 액정 클리너 등으로 준비

라. 축제 홍보

- 팸플릿과 포스터는 미술반에 요청, 괜찮은 것을 선발하여 사용하였음. 학교 앞 두 개 버스 정류장에서의 홍보도 하였으나, 지저분해지므로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음
- ‘티켓 판매’ 행위를 원천 금지

수록 자료 (2006년 동안고 축제, 학생회 신수정)

- 동안고 학생회 신수정 님의 축제 수기

동안고 축제 '두드림&DoDream'

동안고 학생회 신수정

안녕하세요!

2006.09.08 두드림의 매력속에 빠져 보아요.

우선 타이틀 두드림&DoDream은 이중표현이에요. 축제의 문을 '두드리다'와 꿈을 이루자! 라는 귀여운 표현이지요! 덧붙여서 우리 동안고등학교 학생회는 11대부터 난타를 공연했는데요, 북을 '두드리다'의 표현도 살짝 가미됐답니다!

축제는 오전/오후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엔 학교 강당에서 축제를 한 만큼 학교를 이용 할 수 있는건 죄다 이용했는데요. 오전에는 동아리 카페 운영, 학생회 이벤트(OX퀴즈), 미술반 작품 전시회, 환경 캠페인, 동북공정(역사) 등으로, 오후에는 동아리&개인참가자 공연으로 꾸며졌답니다. 오전 준비 팀, 오후 준비 팀으로 학생회 9부서가 반으로 갈라져서 담당을 맡아서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부서 특성에 맞는 일을 도맡아서 진행했답니다. (+부서별 특색끼리 그룹을 짜서 일을 진행하면 쉽게 진행되요! 예를 들어 예능쪽, 머리쓰는쪽, 몸으로뛰는쪽, 잡다한업무쪽 등)

팸플렛과 포스터는 미술반 학생의 작품 중 몇 개를 뽑아서 활용하였답니다! 역시 학교 학생들의 손이 많이 닿은 축제가 가장 참여도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학생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동안고의 운치 '소망지'도 이번에 어김없이 예쁘게 진행됐는데요, 이번엔 예쁜 소망지를 사진으로 하나씩 다 찍어서 공연 쉬는 시간 짬에 동영상으로 틀어주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즐겼답니다. (앗, 소망지란?! 예쁜 여러 종류의 색지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적고 그것을 긴 노끈에 하나하나 연결시켜 등하고 길에 걸어놓은걸 말하는데요, 학교로 가면서 혹은 나가면서 하나씩 읽어보면 정말로 재미있답니다! 운치 있는 학생들의 소망지를 발견하건 GOOD!) 또 이번엔 두 곳의 버스 정류장을 선발해서 동안고 알림발바닥을 땅바닥에 붙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걸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이번엔 학생회에서 이벤트를 많이 개최했는데요, 특히 이번엔 우리 학교에선 동아리 카페 활동에 돈이 걸린 일명 '표 팔기'를 절대 금지 하였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학교에서의 돈거래는 불법인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상 카페 활동에 참가한 동아리가 그닥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재밌게 진행되었답니다. 일면엔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회는 골머리를 앓으며 우리가 알차게 준비해야한다는 명분을 걸고 엄청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요. 학생회 이벤트 OX퀴즈대회는 과학*사회문제, 학교,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문제씩 난센스 +지식을 활용해야 풀 수 있는 재밌는 문제로 알차게 준비해서 진행했답니다! (앗, OX퀴즈는 운동장에서 했는데요, 늘 틀렸는데 맞은 척 하는 나쁜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아주 긴 노끈을 이용해서 학생회 전원이 그 끈을 잡아 직사각형 모양 틀을 유지하고 그 안에 참가 학생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나쁜 일을 방지했답니다.)

드디어 공연축제!

우선 자리 배치는 대위원회의 결과 1,2학년 1반부터~15반까지 이런 순으로 뽑았습니다. 또한 강당으로 입장할 때는 운동장에서 각 반끼리 모여서 한반씩 묶어서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이 강당 입구까지 아이들을 인솔하면 그때부터 학생회가 로테이션방식으로 한반을 맡아서 자리로 안내해주었다지요. 질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인솔하셔서 그런지 특별히 질서담당이 필요하지 않았고 매우 정리된 상태로 깔끔하게 입장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대는 약간 좁았기 때문에 무대를 확장하였는데요, 무대 확장의 단점은 우선 공연 팀의 동선이 파악되는 게 바로 축제 전날이라는 것과, 약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교 강당에서 축제 하실 때 무대를 넓히게 된다면 무대의 거리라던가, 위험도 이런 것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답니다!

1부 오프닝은 동안고의 자랑!(뽀빠라) 학생회의 난타로 시작을 하였지요. (앗, 여기서 잠깐! 학생회가 공연에 참가하게 될 경우 정말 많은 시간을 뺏기는데요, 공연을 준비하신다면 정말 각오하시고 덤비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공연을 하지 않아도 바쁘고 뛰어다닐 일이 산더미 같은데, 공연까지 한다면 몸이 남아나질 않거든요! 우리는 평생 기억에 남을 쇼를 해보자! 라는 베이스를 깔고 시작해서 다들 열심히 하였답니다~) 또 중간에 학생회 이벤트 '선생님 어릴 적 사진 알아맞히기' 를 하였어요. 사실 타이틀만 선생님 어릴 적 사진 알아맞히기이지, 매점 아줌마, 기사님, 급식아줌마, 영양사 언니 등 실제 우리들과 눈을 맞대고 부대끼는(?) 분들 사진도 많이 첨가하였어요. 물론 인기폭발! 다행이 성형설(?)은 난무하지 않았지만 젊었을 때가 훨씬 낫다!!라는 소문이 매우 많이 돌았지요.

그리고 1부와 2부사이의 쉬는 시간에는 오디션 장면들, 연습 장면들, 소망지, 학생회의 피곤에 찌든 모습, 리허설 장면 등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동안인의 사진들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가 시작되고 학생회 이벤트 '무작위 선발 춤추기' 를 하였어요. 물론 선생님도, 학생도 사양하지 않고 끌어내서 춤을 추는 코너였는데요, 아아 우리의 선생님! 쪽팔림을 무릅쓰고 열심히 춤춰 주셨답니다! 사실 좀 상투적인 이벤트지만, 역시 우리 한국인 하면 춤과 노래 아닙니까? 모두가 웃고 떠들 수 있고, 참여만 해준다면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요!

이번 공연에서 눈뜨고 볼 점은 매우 다양한 퍼포먼스가 많았다는 것에 있어요! 축제가 춤, 노래 위주로 진행되지 않고 정말 다양했습니다. 끼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각종 상품은 문화상품권, 동안고 이종 펜, 핸드폰 액정 클리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색 있는 것들을 다 적고 싶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읽으셨나요? 늘 행복하시고, 재밌는 축제, 알찬 축제 이끌어 나가세요!

그 밖의 주요
연간 행사

4. 그 밖의 주요 연간 행사

1 리더십 트레이닝 L.T.(Leadership Training) - 중대부고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한국의 교육은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지 못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서조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의 참여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족했다.

학생회가 학생의 리더이면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원인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교사들의 권위의식과 교과 학습만을 지향하는 대학 입시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학생들에게 주인 됨을 가르친 적이 없다.

사회교과와 도덕교과에서조차 문제유형을 출제방식만을 가르쳤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참여할 때,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가장 중요한 이것을 소홀히 해 왔다.

놀이마당은 만들어주었으나 노는 방법과 즐기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공부도 놀이다.’ 즐거움을 갖고 하는 일이면 무엇이던지 놀이다.

어른들은 그들이 즐겁게 놀지 않는다. 즉, 참여하지 않는다고 탓만 해왔다.

배움도 즐거움의 방법도 개인의 생각과 관심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배우는 단계, 성숙하지 못한 단계, ‘권위’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의식 등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해결하고 대안을 실천을 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들을 한마디로 믿음 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결국 가정과 학교, 사회의 탓이다.

나이가 어리고 많음에 관계없이 믿음과 참여의 ‘활동교육’은 주인의식을 길러주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배워주고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2004학년도 학생회 리더쉽 프로그램 계획서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지도부

1. 주인의식을 갖고 출범한 학생회장단과 학생회운영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실시되는 2004학년도 학생회 리더쉽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가. 주최 : 본교 학생지도부
- 나. 장소 : 본교 대회의실
- 다. 일시 : 2004년 5월 22일(토) 12:30~21:00
- 라. 참가 대상

참가 대상	인 원
교장, 교감선생님	2
2003학생회장단과 학생회운영위원 부장 (11명)	11
2004학년도 학생회장단과 학생회운영위원 부장 차장	30
생활지도부교사	10
2004학년도 학생회장단과 학생회운영위원학부모	30
학생회 졸업생	5
방송반원	1
한국경제신문 이동우 부국장님	1
참가 인원 합계	90

- 마. 리더쉽 프로그램 내용

주제 : 책임지는 봉사하는 존경받는 학생회

시 간	내 용	비 고
12:30~13:00	점심식사	◆장소-지하 1층 식당 ○점심식사 후, 식당을 나갈 때, 명찰, 티셔츠와 학생회 역할, 임무 조직표(학생회담당 교사 준비)를 배부한다. ⇒체육, 문화부 학부모님 ◆준비물-명찰, 티셔츠와 학생회 역할, 임무 조직표
13:00~13:30	학생회운영위원 부서별 임무와 역할 자기 연수	◆장소-각 부서에서 알아서 결정 ◆준비물-학생회운영위원 부서별 임무와 역할표

<p>13:35~13:55</p>	<p>○개회식</p> <p>1)선생님, 학부모 입장, 2)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3)학생회장단 학생회사명 낭독, 4)교장선생님 축사, 5)교가합창, 6)폐회사</p>	<p>♣진행-각 부서 부장</p> <p>◆장소-대회의실</p> <p>♣진행-학생회 담당 교사 이정수</p> <p>○개회식에 참석할 때, 준비한 티셔츠로 통일한다.</p> <p>○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입장을 하실 때, 학생들은 환영가(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해 봉사하시는 아릅다운 그 마음 선생님 부모님 정말로 환영합니다.)를 부른다.</p> <p>◆준비물-애국가, 교가 테이프, 학생회사명 프린트물</p>				
<p>14:00~14:40</p>	<p>○기조 강연-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이동우부장</p>	<p>◆장소-대회의실</p> <p>♣진행-학생회 담당 교사 이정수</p> <p>◆준비물-물 한 잔, 음료수 한 잔 준비</p>				
<p>14:40~15:00</p>	<p>○기조 강연자로부터 사회자가 포럼 주제를 받고, 참석자는 기조 강연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p> <p>○기념 촬영</p>	<p>♣진행-학생회 담당 교사 이정수</p>				
<p>15:20~17:20</p>	<p>○그룹별 디스커션(A그룹& B그룹)</p> <table border="1" data-bbox="427 1115 842 1249"> <tr> <td>A그룹</td> <td>총무, 학술, 복지, 자율부</td> </tr> <tr> <td>B그룹</td> <td>체육, 홍보, 문화, 경제선도, 교육지원부</td> </tr> </table> <p>○각 그룹별로 의장과 기록자를 뽑는다. 주제에 따른 실천 내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p> <p>①요약 작업-기록자</p> <p>②그룹발표 준비-의장</p>	A그룹	총무, 학술, 복지, 자율부	B그룹	체육, 홍보, 문화, 경제선도, 교육지원부	<p>A그룹& B그룹으로 나눠 실시한다.</p> <p>◆장소-A그룹(소회의실)& B그룹(대회의실)</p> <p>♣진행-각 그룹 의장</p> <p>※교사와 학부모, 학생회장단은 참관만 한다. 회의 중 발언권이 없다.</p> <p>○회의 시작 전에 경제선도부학부모님은 A그룹(소회의실)& B그룹(대회의실)에 간식을 준비해 준다.</p> <p>◆준비물-전지 2장, 매직 3색</p>
A그룹	총무, 학술, 복지, 자율부					
B그룹	체육, 홍보, 문화, 경제선도, 교육지원부					
<p>17:20~18:00</p>	<p>○신,구 학생회 간담회</p> <p>1)상견례(구 학생회 임원이 단상에서 있고, 신 학생회 임원들이 한 줄로 악수를 하며 자리에 앉는다.)</p> <p>2)대화</p>	<p>◆장소-대회의실</p> <p>♣진행-2003, 2004학년도 학생회장</p>				
<p>18:00~19:00</p>	<p>○저녁식사(만찬)</p> <p>1)학생회장단과 신,구학생회운영위원 입장</p> <p>2)건배(학생지도부장, 학생회장학부모님, 2004학년도학생회장 순으로 건배 제의)-건배 제의를 할 때, 간단한 말을 덧붙인다.</p> <p>3)감사인사-2004학년도 학생회장</p>	<p>◆장소-구내 식당</p> <p>♣진행-학생회 담당 교사, 총무, 학술, 자율, 복지부 학부모님(상차림에서부터 식당 마무리까지 담당)</p> <p>◆준비물-요리사 모자 10개, 풍선, 기타 식당 꾸밈 재료</p>				

	4)식사 시작									
19:00~20:00	<p>○전체모임(대회의실)-의장-김백건, 부의장-조윤희, 기록자-이승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각 그룹별 토의 결과 발표(각 그룹별 5분) 2)참가자간 의견 교환 3)각 발표를 참고로 요약 4)채택문 발표 5)전지에 쓴 채택문 선생님, 학생회장, 학부모대표 확인 서명</p> </div>	<p>◆장소-대회의실 ♣진행-학생회장 김백건 ◆준비물-전지 2장, 매직 3색</p>								
20:10~20:40	<p>○수료식 및 폐회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선생님, 학부모 입장, 2)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3)촛불의식(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지도부장, 학부모회장, 학생회 담당 교사가 학생회장단을 통해 촛불을 전달한다. 이 때, 진행자는 촛불의식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말을 덧붙인다.) 4)학생지도부장 폐회사, 5)교가합창, 6)폐회사</p> </div> <p>○프로그램 종료</p>	<p>◆장소-운동장(우천시 대회의실) ♣진행-학생회 담당 교사 이정수 ◆준비물-뺏지(badge) 30개, 양초86개, 종이컵 86개⇒교육지원부, 홍보부학부모님 준비</p>								
20:40~21:00	<p>○평가회(학생지도부장 주관으로 학생회장단과 회장단 학부모님, 생활지도부 교사들 참석)</p>	<p>♣진행-학생회 담당 교사 이정수 ◆준비물-회의록</p>								
학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만찬장</td> <td>총무, 학술, 자율, 복지부</td> </tr> <tr> <td>점심 식사</td> <td>체육, 문화부</td> </tr> <tr> <td>간식</td> <td>경제선도부</td> </tr> <tr> <td>수료식 및 폐회식</td> <td>교육지원, 홍보부</td> </tr> </table>	만찬장	총무, 학술, 자율, 복지부	점심 식사	체육, 문화부	간식	경제선도부	수료식 및 폐회식	교육지원, 홍보부	
만찬장	총무, 학술, 자율, 복지부									
점심 식사	체육, 문화부									
간식	경제선도부									
수료식 및 폐회식	교육지원, 홍보부									



기조 강연 중 중대부고 학생회 모습.



기조 강연 발표자 한국경제 부국장님.

개회식 후 기조 강연입니다.

기조 강연 내용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것들 이였습니다.

중대부고 학생들은 기조강연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며,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로 리더십 포럼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룹별 디스커션 A그룹 의장.



그룹별 디스커션 A그룹 회의 중.



그룹별 디스커션 B그룹 의장.



그룹별 디스커션 B그룹 회의 중.

학생회를 A조와 B조로 나누어 그룹별 디스커션을 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중대부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길’이었으며 학생회가 앞으로 해야 할 활동,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등 **학교의 중심이 학생이 되기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회의를 하였습니다.



저녁 만찬.



저녁 만찬중 감사의 말씀.(학생회장 김백건)

그룹별 디스커션 → 기념촬영 → 저녁 만찬

저녁만찬에서는 선생님, 학부모, 졸업생, 재학생 모두가 모여 만찬을 즐겼습니다. 교육의 3주체가 모여 밥을 먹는 역사적인 날 이였습니다.



신·구 간담회.



신·구 간담회 진행자 (학생회장단)

시간상 저녁 만찬후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2학년도(졸업생) 학생회장단 선배님들이 오셔서 학생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등을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사회 진행은 2004학년도(고2) 학생회장단이 하였습니다.



전체회의 진행 모습.(진행자 학생회장)

기조강연과 그룹별 디스커션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전체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교감선생님,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기념촬영.

결의문

- 학교 환경을 청결히 한다.
- 질서와 규칙을 생활화 한다.
- 진지하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촛불의식.

마지막 촛불의식 순서로서, 수료증, 꽃다발 증정식을 하였습니다.

꽃다발은 학부모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꽃다발 증정과 동시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짙한 포옹을 하였습니다. (감동)



며칠 후 결의문 현판식.



며칠 후 결의문 현판식.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현판으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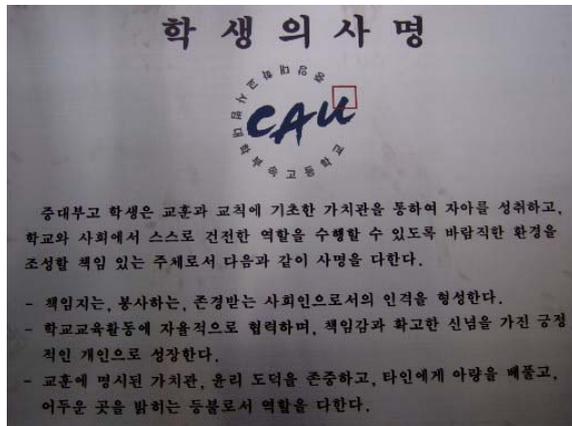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 학생 학교의 3주체가 모인 가운데 결의문 현판식을 진행 하였습니다.



중대부고 정문에 나란히 서있는 결의문과 학생의 사명



결 의 문



학 생 의 사 명



2004학년도 중대부고 학생회

학생회의 사명



중대부고 학생회는 교훈과 교칙에 기초한 가치관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아성취를 돕고,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명을 다한다.

- 책임지는, 봉사하는, 존경받는 사회인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욕구와 희망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돕는다.
- 자율적이고, 협력적이고, 책임감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교훈에 명시된 가치관, 윤리 도덕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아량을 베풀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 회장 김백건

수석부회장 조윤희

차석부회장 이승훈

2 학생에 의한 학생징계 "학생자치법원"제도 - 해운대고

작성: 해운대고 장진구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입시에 바쁜 3학년입니다. 이름은 장진구라고 합니다.

소속은 해운대고등학교이며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탈 및 선도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생활지도부(소위 학생부)의 체벌 등 직접 처벌 대신 검사의 기소로 법정 재판절차를 거치게 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의 변론을 맡기고 실제 법정을 개정하여 벌점 및 봉사활동 등으로 판결을 내리는 "학생자치법원"제도입니다. 매년 교내사법고시를 실시하여 법관을 선발하고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자치법원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실무 운영을 위한 "법정연구부"라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저는 현재 학생자치법원장이며 법정연구부장입니다.

제가 이곳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학생자치법원"제도입니다. 이미 저희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로 정착되었구요. 다른 단체에서 흔히 추진하는 "모의재판"이 아니라 실제 학교 정책(학생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재판"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법복 지원 및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003 전국 모의법정추진연대 주관 모의법정대본공모우수상, 2005 6.15 법무부주최 법교육활성화를 위한 모의법정 시연회 참가 (이 때 민족사관고와 같이 출전했으나 고승덕 변호사 및 관련 법조인으로부터 준비도나 전문성 면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교내 단체이기 때문에 대외활동이 썩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학교 업무상 중대한 부분(학생 징계)에 깊이 관여하는 단체인 만큼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런 일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기회에 소개합니다. www.lawedu.go.kr 이 곳은 법무부 법교육 사이트입니다. 6월에 있었던 모의법정 모습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학생법정" "청소년법정" "해운대고등학교" 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뉴스/사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법정하면 민족사관고를 많이 떠올리시지만 그곳은 영어로 진행하며 판결도 명심보감쓰기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학교중심의 일방적인 징계만을 수동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학교에 의한 강압적인 처벌과 조사 과정에서 재현되는 추가적인 인권침해 (체벌 등 이중처벌, 강제이발 및 압수 등)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 처벌의 민주화를 학교 측에 요구해오면서 학교와 학생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규정 개정건의 및 관련 공청회참여 등등, 한고학연에도 저희 자치법원이 지향하는 방향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고요.

그럼 전국 고등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AGORA

*AGORA는 그리스의 폴리스에 존재했던 광장 이라는 뜻입니다. ^

발행인 : 백마고등학교 학생회 문화홍보부 / 발행일 : 2006년 4월 10일
club.cyworld.com/bmstudent

이달의 커버스토리 ★ <중간고사>

바쁘게 지냈던 3월이 어느새 끝나고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달이라 늦게 지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새 학년이 된 한 달동안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에 적응하느라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3월 마무리 잘 하시고 4월을 맞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4월에는 특별한 '날' 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1일은 만우절 이었고, 이제는 빨간 날이 아니어서 조금은 속상하기도 한 5일, 식목일도 있었죠. 4월 14일 블랙데이도 다가오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4월의 날은 언제일까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1학기 중간고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에 들어와 처음으로 보는 정기 고사이고, 2,3학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년의 첫 시험이라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4월30일 일요일 포함)치러지는 2006학년도 첫 중간고사. 철저히 준비해서 후회없는 성적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파이팅!^^

아고라 창간호 특별판은요,

- ①커버스토리-중간고사
- ②선생님interview-학생복지부장 최승영선생님
- ③학생회이야기 ④백마고등학교 학생회는요... ⑤백마고소식

선생님 interview

'학생복지부장 최승영 선생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점심시간, 학생부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올해 처음 우리 학교에 부임하신 최승영 선생님. 선생님과 친지하고도 재미있었던 인터뷰, 그 현장 속으로 같이 떠나보자.

Q :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 음, 백마고등학교 학생복지부장이자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승영입니다.

(정말 간단한 소개를 해주신 선생님^^)

Q : 저희 학교에 올해 처음 오셨는데요, 학교의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선생님 : 글썄... 대단히 학생이 많다고 느꼈어. 그리고 또 좁다는 걸 느꼈고.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학교는 넓은 시골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운동장도 백마고 운동장의 4배 정도 되는 크기였거든. 그런데 아파트에 둘러싸인 학교를 보니까 더 좁아보인거지. 게다가 학생 수도 많고.

Q : 조금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두발 규제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편이잖아요. 두발 규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선생님 : 학생부 일을 맡다보면,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할 때가 많아. 두발 규제 같은 것들인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자료도 구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 안에 담긴 철학 같은 것들도 따져보고. 또 과거, 현재, 미래와 우리나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기도 해서 결정을 내려서 학생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이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두발을 단정히 하기를 요구하는 거야. 단정하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찢어진 청바지를 무조건 단정하지 않다고 할 순 없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상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두발 규정은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뽑아낸 접점이라고 볼 수 있어. 다른 지역의 학교들의 두발 규정을 찾아보니 까 대부분 우리 학교와 비슷한데, 그건 현재 두발 규정이 우리나라에서 도출된 접점이라는 의미지. 모두가 같은 머리를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곧 두발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야. 거기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약간 수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또 외국의 경우를 찾아보니 인권을 존중하는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단정한 학생들의 모습은 모두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의 접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현 사회의 적당한 수준에서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물론 지도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가위로 자르는 식의 지도 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Q :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을 '아빠 같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선생님만의 인기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선생님 : 침 듣는 이야기인데^^; 아빠? 나 말야?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 글썄, 나이 때문이 아닐까? ("에이, 나이 때문은 아니죠" 라고 말씀드린 기자^^) 무섭다는 말은 없고? 뜻밖이네. 딱히 비결은 없는데.

Q : 에이. 비결 알려주세요^^

선생님 : 정말 없어. 지금 처음 듣는 소린데. 연구해 봐야겠는데.

Q :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선생님 : 설득을 먼저 하지.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에 맞게 지도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을 줘야 하는 거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벌을 줘야 하는거지. 처음엔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정 말을 안 들으면 기합을 주고. 거기서 더 안되면 매를 들 수도 있는거지. 하지만 대부분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Q : 마지막으로 백마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선생님 : 위풍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풍당당하다는 것은 떳떳하다는 이야기죠. 인간이니까 누구든지 잘못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소한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저지르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부장 선생님과 재미있고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선생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마음속에 은연중에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생복지부장 선생님 사이에 좋은 관계가 싹텄으면 좋겠다.

학생회이야기♡

아기다리고기다리던 아고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3월 학기 초부터 여러분께 선보이고 싶었지만 학생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제야 여러분께 보여 드린 것 죄송합니다.

학생여러분, 힘찬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끼어있어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4월을 시작하셨으면 해요. 4월 백마고등학교 캠페인 주제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쓰레기줍기]**인데요. 현재 각 층 계단에 쓰레기통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정확히 쓰레기를 버려주셔야 하는데 그냥 그 주변에 휙 하고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이용하는 모습이 더 현명한 모습이겠죠? 먹을 것을 들고 교내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그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백마고 학생여러분 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실 두발토론 학생회게시판 훑피

여러분, 우리학교 1층에 **[다목적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다목적실에서 각종 회의도 열리고 있고, 석식도 먹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목적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다목적실을 사용하고 싶은 학생은 학생부에서 허락을 받아 행정실에서 열쇠를 받으면 담당 선생님의 지휘 아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실에서는 동아리 공연, 관람, 연습 등을 할 수 있고요, 영상물이나 작은 전시회 등을 열수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사용 후 뒤처리도 잘 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목적실에서 정문 쪽 현관 쪽으로 나가다 보면, 새로 **[게시판]**이 하나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게시판이 학생회에서 꾸미는 게시판이에요. 학생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학생회인지, 이 달의 캠페인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건의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5월에 **[두발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두발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조금은 심한 편이죠?^^;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 3주체가 모여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발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두발토론회 전에 한번 모여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고 그 중에 참여학생을 뽑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준비해 주시구요. 이번 토론회는 우리에게 있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의 의견을 당당히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기회이므로, 여러분이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의함]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매 주 빼먹지 않고 건의함을 열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건의함에 넣어주신 의견은 학생회→ 학생부→ 교감, 교장선생님께로 올라가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상 여러분께 4월의 학생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아직 미숙한 모습이 많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캠페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건의함과 두발토론회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기타 질문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club.cyworld.com/bmstudent에서도 받고 있으니, 많이 들려주세요☆

창간호 특별기획.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학교 학생회가 궁금해요!

『우리 학교에는 학생회가 있다. 그것도 제 8대 학생회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학교 학생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학생회 임원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뒤에서만 활동하는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며 활동하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학생회를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학생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회장 : 3-3 강형욱

부회장 : 3-11 임성현

	부장	차장	비고
총무부	3-12 최수민	2-15 황순하	급식 개선 자금 관리
문화홍보부	3-6 윤 윤	2-5 정창재	학생회 신문제작 학생회 홈페이지 운영 학생회 홍보
행사기획부	3-10 이나모	2-7 장선근	학생회 캠페인 주도
생활복지부	3-2 허경진	2-10 이윤경	건의함 관리
문예부	3-1 제갈덕현	2-11 정유석	동아리 활성화 게시판 제작 강당 운동장 개방
환경부	3-3 신명기	2-9 노재민	게시판 관리
서기	2-11 성다원		회의 기록

백마 소식

이제 정말 완전한 봄이 왔죠. 추운 느낌도 점점 사라지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좀 있으면 꽃도 필 테니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 주말에 한 번쯤은 봄을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4월 우리 학교 일정은 이렇습니다.

4월 15일 3학년 졸업앨범 촬영 (호수공원), 1,2학년 계발활동

4월 18일 헌혈

4월 19일 고3 전국 연합 모의고사

4월 19~21일 고 1,2,3 영어 듣기 평가

4월 29일 ~5월 3일 중간고사

학생회 수기모임

5. 학생회 수기 모음

1년 간 전교생을 책임질 학생회 - 민사고, 중대부고, 인천예고 수기

학생회 임원으로서 한 학교를 끌여가는 것은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다. 나 하나만 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교 천여 명의 학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매년 2,000여개 학교에서 약 6만여 명이 해내고 있다는 사실은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나라고 못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적으로 나가야한다.

아래에는 가장 최근의 학생회 수기를 담았다. 먼저 학생회를 거치며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수기는 향후 학생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부러움을 사는 학생회 여건을 가진 학교 중 하나인 민족사관고등학교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형식, 서울 중대부고 총무부장 최성호, 인천예고 학생부회장 한혜미의 학생회 수기를 실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회 수기

민사고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형식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제 18대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 기숙사 3층 총장과 3학년 대표, 3학년 국제계열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형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짹짹~

우선 제가 활동했던 제 18대 자치위원회는 제 바로 다음 학생회에 학생공화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는 마지막 자치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 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저희 학교는 현재 입법위원회의 주도 아래 이 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기숙사 내 교실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매주 금요일 4교시에 있었던 학급회의 시간이 유일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가 활동했던 자치위원회와 또 다른 학생회인 명예위원회가 번갈아 가며 주제를 선택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매주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을 저희가 정리하여 학생부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다시 논의가 필요한 점은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으로 가야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학생부장 선생님께 잘리는 의견들은 저희가 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예' 고려조차 안 했던 것으로 오해를 샀고 나중에는 "학생회의 왜 하느냐, 반영도 되지 않는데." 라는 말까지 들어서 무척 속상했습니다.

그 때 '어느 의견은 건의 했었지만 어떤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보았다' 등등 공지를 제때 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남습니다.

2. 때로는 무법자로?!

저희 학교의 의사처리 시스템은 우선 학생부장 선생님으로 건의가 가면 검토 후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으로 가는 식입니다. 하지만 보통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장선생님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주질 않는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의사 처리 시스템은

물론 어느 학교라도 다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끔씩은 무법자로?! 처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 학교는 한 달에 한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 귀가를 합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오후 수업이 마친 후에 버스를 타고 귀가하여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에 금요일 오후 수업을 하지 말고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먹고 바로 귀가 하자는 의견에 이를 학생부장 선생님께 건의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받아들여지질 않을 것 같아 이를 잠시 보류하고 교장선생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의견제시를 하자고 하였고 교장선생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 때 물론 학생부장 선생님, 교감선생님 계십니다.) 바로 이 의견을 말씀드렸고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받아들여 현재는 금요일 오후 수업은 하지 않고 바로 귀가를 한답니다! (아참~ 이 이야기는 16대 자치위원회에서..)

법을 어기라는 소리라기보다는, 현명하게 학생들의 의견전달을 확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면 분명히 꿈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100% 다 만족시킬 순 없다

저는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 모든 친구들한테 의견을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동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친구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견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밤새 고민하곤 했습니다. 한 예로 신입생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저희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소개시키려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통대로' 교내 동아리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에 시간표를 짰고 이를 신입생들에게 공지하여 기숙사 내 혼정실(혼전신성을 행하는 곳)에서 동아리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시간표를 짜보니 동아리마다 10분만 주어도 무려 3시간을 넘어가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그마한 혼정실에서 150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3시간동안 들으면 무척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어차피 이것은 다 들어야 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그러면 의무참석을 하지 말고 자율 참석으로 하던지 라는 의견과, '그런 거 그냥 하지 마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발표시간 전날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그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모두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내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얼마나 만족할 만한 행동인가 보다는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 부터 생각하고 이를 이행했을 때 어떤 손실이 나고 얼마나 이익이 되는 지를 따져서 이익이 더 크면 밀고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회 내에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죠.

4. 학생회 후배들과 친해져야 / 활동 기록!!

제가 자치위원회 활동을 했었을 때는 2학년 2학기 때로서 저 다음 학생회는 저희 후배가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후배들에게 '학생회'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물론 한꺼번에 긴 강의를 통해 이루어 질수도 있겠지만, 후배들이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도록 학생회 후배들과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숙사 식당에 음료수 자판기가 있어서 학생회 후배들에게 음료

수도 쓰고, 가끔 컵라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식당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맞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후배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학생회 활동을 할 때 해놓은 자료를 직접 보여주며 코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지금 무척 후회를 하네요. 활동 기록은 여러 기획안에서부터 학생회의 때 학생들에게 걷은 의견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 됐나 등이 될 수 있겠지요~!

모두 학생회 활동 열심히 후회 없이 합시다!

중대부고 학생회 활동 수기

중대부고 총무부장 최성호

안녕하세요. 저는 중대부고 학생회 최성호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흔히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좋은 추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닌 것 자체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수학여행 등도 기억에 남는 일이겠지만, 저는 좀 더 학교를 위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정과 능력으로 우리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득이 되는 일을 하고, 이로써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1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제 뜻을 펼쳐보고자 노력했습니다. 2학년 들어서는 더욱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 나가지 못하고 대신 학생회 총무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대부고에서는 4월 중순에 전교회장 선거를 하고 곧 학생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 큰 행사로는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는 5월 말에 합니다. 학생회와 자율부 전원이 모여서 1년 간 활동을 토의하기도 하고, 학생회-학부모-교사 3주체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하며,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국회의원의 리더십 강연도 있었습니다. 축제는 9월 초에 있는데,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부터 여름 방학 동안 전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이번 해에는 새로 학생회 클럽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토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축제 내용과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름 방학 중에는 간부수련회를 가는데 이 때 축제에 대한 일부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축제를 마치고, 곧 다가오는 수능에 선배들을 위해 떡과 음료수를 준비하고 수능 당일에는 여러 학교로 응원을 나갑니다. 12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는 자매부대 위문을 가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대 생활 등을 둘러보고 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해 2월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학생회 활동을 마칩니다.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은 중대부고 학생회 클럽과, 제 블로그에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남짓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제약을 느껴야 했습니다. 처음 학생회를 할 때부터 '우리 학생이 주인이 되어서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도 미약했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많은 일들이 교사와 학부모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 우리 학생회는 주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학생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는 한고학연에 가입하게 되었고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고학연에는 열정이 넘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으며,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 서로 의논하는 곳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더 학생답고 학생회가 더 학생회다운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모인 곳입니다. 저는 한고학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고학연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이곳에 가입할 것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학교에서 만족할 만한 학생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한고학연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 드립니다. 다만 한고학연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학생들의 연합회라는 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주체 의식을 갖고 학교에서 멋진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중대부고 학생회 최성호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 수기

인천예고 학생부회장 한혜미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인천예술고에 재학 중인 제 6대부회장 한혜미(18)입니다.

각 학년 당 5반씩으로 1,2,3학년 전교생이 500명도 넘지 않는 것이 저희학교의 특징인데요. 이런 저희 학교가 이제 9년이라 홍보도 잘 안 되어있고, '인천' 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이 9년 된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 1년간 준비를 했답니다. 제 전공은 서양화로 처음부터 서양화과에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요. 혹시 '밥 아저씨'라고 기억나세요? 어릴 적 그 분께 폭 빠져서 초6 겨울방학 때 취미로 했던 미술공부로 시작해 중 3때 본격적으로 준비해 이곳에 입학했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의 결심은, '그냥 장난치자고 들어온 학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천예고에서의 고등학교생활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자' 였답니다. 공부나 그림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과 함께 그야말로 '학교활동'을 열심히 하자 였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부반장, 선도부, 미술부차장, 반장까지 학교에 애정을 갖고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학년 때 새로 생긴 욕심중 하나가 '학생회장'까지 나가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물론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막상 부회장이 되어보니 무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학교에서 준 일들을 하기엔 뭔가 성이 안찼는데요. 사실 저의 관심은 '미대'라 다른 과들의 대입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정확한 건 미대에선 학생회장, 부회장 등을 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붙는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매달 전체 학생회의를 하지만 저희 학교는 학생회가 아주 활발하진 않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매일 점심시간마다 회장단 아이들을 만나 회의하고 학생회발전을 위해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내세운 공약중 하나가 '학생회 발전' 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 중 하나가 회의 때 쓰는 '일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적어 내년 후배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쓰는 걸 좋아하는 제가 열심히 적어 내년 후배들에게 물려주면 그 후배들은 '아 이 시기쯤에 작년엔 이렇게 했구나'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또 각 부장 및 차장들에게 좀 더 확실한 역할 부여를 해주는 거였죠. 예를 들어 저희학교는 '총무부/학습부/환경부/선도부/음악부/미술부/무용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시회, 예무제, 음악회 등으로 축제를 대체하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각 행사마다 미술부, 무용부, 음악부가 각 과 의견 반영 및 행사 홍보를 담당하는 거죠. 전시회는 매년 한번, 일학년 때와 이학년 - 총 고등학교 생활에 두 번을 하구요, 음악회는 협주곡의 밤을 포함해 일 년에 두 번, 예무제는 일 년에 한번 합니다. 보통 그 짧은 시간을 위해 몇 개월을 투자하는데요. 실기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아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준비하는 기간의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죠. 그 열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전 너무 멋져보였던 거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개발에 몇 배로 투자해야하니 학교 일에는 소홀해지는데요. 특히 학생회에 소속된 우리들도 이 부분이 걱정인거죠. 사실 학생회가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가 믿어주고 학생들이 따라주어야 비로소 활발한 운영이 가능한 거 맞죠?

그래서 저의 커다란 목표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단순히 말하면 '임기가 다하기 전까지 활발한 학생회를 만들자' 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다른 학교 학생회분들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처음엔 다음 카페를 돌아다녔습니다. 회장단 카페를 보려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돌고 돈 결과 운 좋게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 다양한 학교들의 글들을 보며 너무 신기했는데요, 그래서 순수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더 잘 알고 싶어 이곳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입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의 공통된 문제점, 다양한 장점들을 알아가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단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천예술고등학교'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학교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기뻐고, 사람 만나길 좋아하는 저로써 많은 분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열정까지 느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처음 인천예술고등학교 입학식 때 보았던 음악과 선배님들의 축하 연주회 감동과 처음 보았던 무용과의 화려한 공연, 처음 도전해봤던 전시회, 그리고 손과 발로 뛰었던 학생회활동까지..

이 중 특히 이번 2006 전시회 때는 특별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직접 포스터를 들고 지하상가 상인 분들께 부탁해 부평 대부분의 가게들에 포스터를 붙였던 것과 지하철 열차에서 상인 분들처럼 직접 '안녕하세요. 인천예고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천학생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합니다!'라며 목청 높였던 것까지. 이렇게 열정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유한 그 추억도 두 이제 제겐 너무나도 소중한고, 저희학교와 이 학교 덕에 알게 된 여러분들까지 모든 것이 마냥 좋은 거 있죠.

[학생회일지中..... 9월 13일(미술전시회 하루전날)

① 점심시간에 각 부장들을 만나기로 함 : 이미 부장, 차장들을 만났으나 함께 할 부장들끼리 얼굴을 보는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 학생회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참고>>>부장회의.

② 학생회 혹은 미술부 주관일은 아니었으나 4,5,6교시에 미술과 3명이 전시회 관련 포스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지하철에 붙이기로 함 - '인천 지하철'에 협조요청을 받기로 함, 부평 지하상가에 핸드폰 가게들에 허락을 받아 포스터를 붙임.= 다음부터는 학생이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닌, 학생회에서 먼저 나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 전시회오픈 8시간을 남겨둔 채 붙인다는 것이 촉박하지만 '한명이라도 오지 않을까' 와 '학교홍보'에 목적이 있음 > 다른 고등학교들에 대한 전시회홍보는 각 학교의 미술선생님들께 갔다는 공문으로 만족하기로 함. >>> 포스터 총 39장. : 부평지하상가 게시판, 모든 핸드폰가게, 얼짱, 빨계떡, 씽크빅문고에 허락을 받고 붙임 / 버스에 붙임 / 지하철 칸마다 홍보 / 제물포, 선인재단(교복집 등 학생들이 많은 곳) / 동인천 지하상가 및 전시회장 근처에 붙임

여기까지가 ing 되고 있는 저희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생회 일지'에는 좀 더 자세히 적었지만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예술고'도 한국고등학교의 한 학교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예고라고 하면 부정적인 편견을 포함해 어떤 개인적 판단을 내리시기도 하는데요, 꿈의 시작을 남들보다 일찍 선택해 그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온 예고를 비롯한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생각이, 제 글로인해 조금은 변하셨길 바라는 게 지금당장의 작은 소망입니다.

아직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 나가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꿈에 자부심을 갖고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보려는 자부심 가~아아득한 모 학교의 부회장 한혜미였습니다.

모두모두 늘 행복하세요!

인천예고 학생부회장 한혜미

빨리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가라!

by
최성호/김원/정성헌

이 책의 저작권 및 배포권에 관한 규약은 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BY-NC-ND 2.0을 따릅니다.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위한
학생회 활동의 절대 중심
고품격 학생회

#1

